

2020년 1월 14일 제호
연구위원 이주완
연구위원 안혜영
연구위원 오유진
연구위원 황규완
수석연구원 김동한
수석연구원 김유진
수석연구원 마지환
수석연구원 김지문

HIF월간 산업 이슈(1월)

Monthly Industrial Issue

산업별 주요 이슈

음식료 온라인 음식료 시장 확대의 명과 암

- 최근 유통업체(온라인 판매중개사, 유통업체의 온라인몰)를 중심으로 음식료 온라인 판매가 확대되면서 음식료 산업의 관심채널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이동
- 국내 시장의 지리적 여건, 소비 트렌드 변화, 기술 발달 등을 고려할 때 온라인 음식료 시장의 성장잠재력이 커 추가적인 성장이 기대되나, 다양한 player의 대거 진입에 따른 과당경쟁이 우려

정유 미국-이란 갈등 고조에 따른 국내 정유사 영향과 시사점

- 美 공습으로 이란 Soleimani가 사망하면서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되었지만 전면전으로 이어질 가능성 낮음. 그러나 유가 강세 지속, 경기 불만에 따른 수요 둔화로 정유, 화학 산업에 부정적 영향 예상
- 이번 사태가 국내 원유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나, 중동 리스크가 빈번하게 발생 시 경기 하강기에 위치한 국내정유/화학 산업에 원가 부담 확대, 수요 감소 등 부정적 영향으로 이어질 수 있음

철강 건설경기 부진으로 수급악화가 예상되는 국내 철근시장

- 2019년 하반기 이후 국내 철근시장의 수급불균형 리스크가 확대되고, 유통가격이 급락하면서 제강사의 실적이 악화되고 있는데, 대형업체의 영업이익률이 중견업체보다 낮은 것으로 파악
- 2020년 국내 건설산업(주거용 중심)의 수요 부진이 지속되면서 철근 수요가 연간 천만 톤을 밑돌 것으로 예상되어 전기로 제강사의 추가적인 실적 하락이 불가피할 전망

반도체 삼성은 대형 OLED 도전, LG는 LCD 출구 전략 시동

- 삼성디스플레이는 지난해 10월, 2025년까지 13조원에 달하는 QD-OLED 투자 계획을 발표하고 올해부터 장비 발주를 시작해 본격적으로 대형 OLED 시장에 진출
- LG디스플레이는 CES 2020 기간 중 TV용 LCD 패널의 국내 생산 중단을 발표함으로써 LCD 사업을 대폭 축소하고 OLED에 전념하겠다는 의지를 피력
- 삼성, LG 등 국내 디스플레이 기업들은 기존의 LCD 생산시설을 OLED로 전환해 Fab 건설 기간과 비용을 최소화하려는 전략을 세웠고 올해부터 OLED 장비 업체들의 수주 증가 기대

자동차 양호한 성장세를 구가중인 드론 시장

- 美 Teal Group의 전망에 따르면 글로벌 드론 시장은 2016년 55.7억불에서 2026년 221.2억불로 연평균 14.8%씩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글로벌 기업들도 활발하게 시장에 진출 중
- 한국 정부는 상업용 중심의 드론산업 생태계 조성, 공공 수요 기반으로 운영시장 육성 등을 모색 중이며, 민간에서도 드론 배송 서비스의 상용화 작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음

조선 중국 1위 및 2위 조선그룹 합병 승인 및 시사점

- 최근 중국 1위 및 2위 조선그룹의 합병이 승인되면서 합병그룹은 현대중공업그룹을 제치고 전 세계 최대 조선사로 등극하였으며, 향후 중국 정부의 지원이 합병그룹으로 집중될 것으로 예상
- 이러한 구조조정을 계기로 중국 조선업계는 LNG선 등 고부가가치 선박 수주에 역량을 집중할 것으로 보이나, 현재 한국과의 기술력 차이 고려 시 단기간 영향은 미미할 전망

태양광 급랭한 중국 태양광 시장, 2020년은?

- 2019년 중국 태양광 설치량이 전년의 절반 이하로 축소되며 신규 수요처로서의 위상이 과거보다 약화되었으며, 2020년에도 재생에너지 예산 축소 등으로 설치수요 회복 제한될 전망
- 다양한 국가로 태양광 설치가 확대되며 세계 시장은 지속 성장하겠으나, 상위 제조업체들의 지배력 강화로 중국 외 시장에서의 판매경쟁이 심화되며 국내 기업들의 대응전략 마련이 요구

건설 호르무즈 해협 긴장 고조로 해외수주 위축 불가피할 전망

- 전통적인 해외 수주 지역인 페르시아만 인근지역의 긴장고조로 중동지역 신규수주 위축 불가피해 해외수주 회복 지연될 전망
- 호르무즈 해협 봉쇄 등 최악의 경우 기 진행중인 공사의 지연 및 중단이 우려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사업장 부실 가능성에도 주의

유통 면세점, 시장 성장세에도 중소 업체들의 부진은 지속

- 국내 면세점 시장은 다이공 소비를 기반으로 양호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나, 이들 다이공에 대한 수수료 경쟁으로 중소 업체들의 수익성 부진이 지속되고 있음
- 한화, 두산, 탑시티 등 중소 면세점들의 연이은 폐업과 최근 신규 입찰 미달이 이 같은 부진을 반영하고 있으며, 적자 지속과 높은 경쟁 강도를 겪고 있는 중소 업체에 대한 보수적 접근 필요

산업별 경기 트렌드

경기사이클		둔화(주의)	침체	회복	안정	활황	둔화
C10-11. 음식료품	음식료				●		
C13. 섬유	섬유		●				
C14. 의류	의류		●				
C19. 정유	정유						●
C20-21. 화학제품	석유화학						●
	제약				●		
C22. 고무,플라스틱	고무,플라스틱	●					
C23. 비금속광물	시멘트						
C24. 1차 금속	철강						●
	비철금속						●
C26. 전자부품, 영상 통신장비 등	반도체		●				
	디스플레이		●				
	통신장비(휴대폰)						
C29. 기계	일반기계			●			
C30. 자동차	자동차		●				
C31. 가타 운송장비	조선		●				
D. 에너지/인프라	재생에너지				●		
F. 건설	건설						●
G. 종합유통	무점포(온라인)			●			
	종합소매업(대형)		●				
	편의점		●				
H. 숙박 및 음식점	숙박(N/A)						
I. 운수	해상운송		●				
	항공운송						●
J. 통신,미디어	통신서비스						
	SW/SI						
L. 부동산 및 임대	부동산						

산업 이슈

- 음식료 : 온라인 음식료 시장 확대의 명과 암
- 정유 : 미국-이란 갈등 고조에 따른 국내 정유사 영향과 시사점
- 철강 : 건설경기 부진으로 수급악화가 예상되는 국내 철근시장
- 디스플레이 : 삼성은 대형 OLED 도전, LG는 LCD 출구 전략 시동
- 자동차 : 양호한 성장세를 구가중인 드론 시장
- 조선 : 중국 1위 및 2위 조선그룹 합병 승인 및 시사점
- 태양광 : 급랭한 중국 태양광 시장, 2020년은?
- 건설 : 호르무즈 해협 긴장 고조로 해외수주 위축 불가피할 전망
- 유통 : 면세점, 시장 성장세 하에서 중소 업체들의 부진은 지속

C10. 음료 : 온라인 음료 시장 확대의 명과 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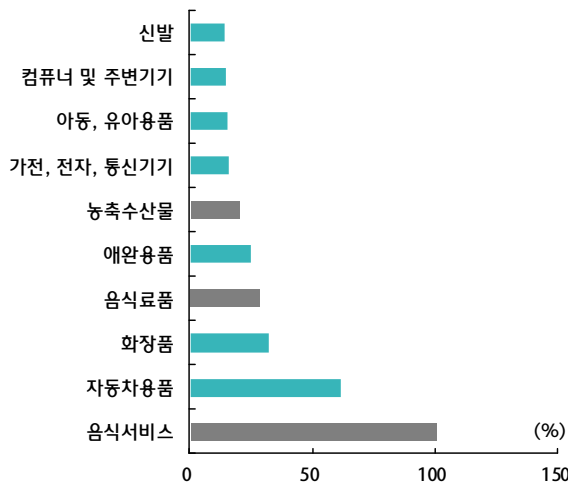
※ **Summary** : 최근 유통업계(온라인 판매증가사, 유통업체의 온라인몰)의 온라인 판매가 확대되면서 음료 산업의 관심채널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이동. 이와 같은 온라인 음료 시장의 성장은 1인 가구 및 맞벌이 가구 증가, 배송시설 구축, 택배 및 모바일 시장 발달(배달앱) 등에 기인. 국내 음료 수요가 정체된 가운데, 음료 제조업체 또한 유통 수수료 절감 및 프로모션 확대 등에 따른 비용 감축으로 마진 개선이 기대되는 온라인 유통시장에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확장 중

※ **Comment** : 국내 시장의 지리적 여건(작은 영토), 소비 트렌드 변화, 기술 발달 등의 여건을 고려할 때 온라인 음료 시장 성장잠재력은 크나, 다양한 player의 대거 진입에 따른 과당경쟁이 우려

■ 최근 국내 음료 산업의 관심채널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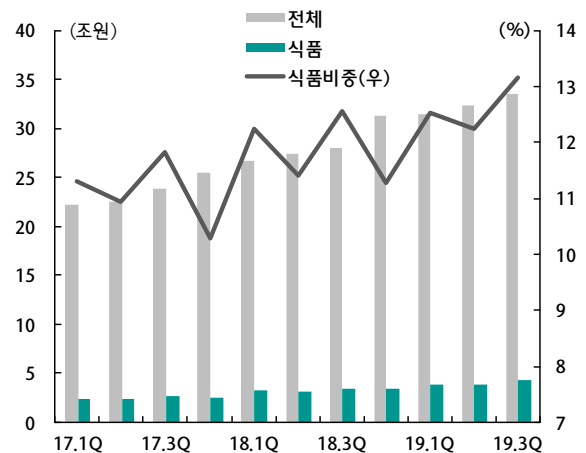
- 국내 음료 산업의 오프라인 판매가 감소하는 반면, 온라인 판매가 증가하면서 관심채널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이동
 - '8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성장해 온 대형마트 내 식품판매가 2012년부터 감소 추세인 반면, 온라인 식품 거래액이 크게 증가하면서 음료 제조업체의 온라인 판매 비중은 2015년 5%에서 2019년 12%까지 확대(식품 채널별 매출 성장률 : 온라인 > 편의점 > 백화점 > 대형마트)
- 온라인 식품유통의 경우 비식품 대비 초기 투자부담이 크고 평균 판매단가가 높지 않아 과거 유통기업의 온라인 채널 확대 경쟁에서 소외되어 있었으나, 최근 신수요 창출 과정에서 시장이 급성장
 - 음료제품 및 농축수산물의 온라인쇼핑 거래액 증가율이 타상품 대비 높아 전체 온라인 시장 내 식품시장 비중이 지속적으로 상승하였고, 2019년 3/4분기 13%를 상회

그림1 | 상품군별 온라인쇼핑 거래액 증가율 현황(YoY)



주 : 2019년 11월 기준
자료 : 통계청

그림2 | 온라인 시장 내 식품시장 비중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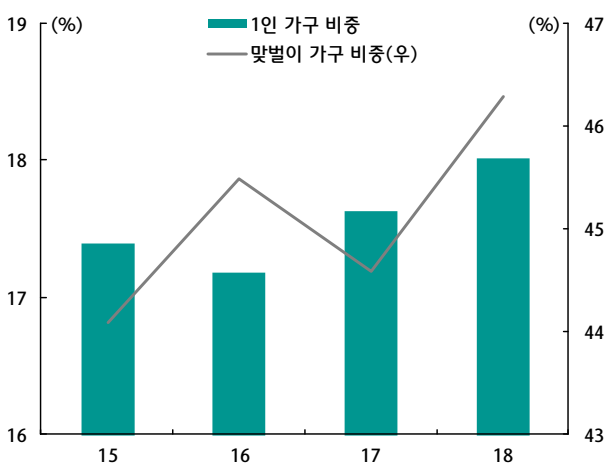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 온라인 음식료 시장은 소비자의 취향 변화, 식품관리 기술 발달 등의 요인을 바탕으로 신선 식품으로 범주가 확장되면서 급성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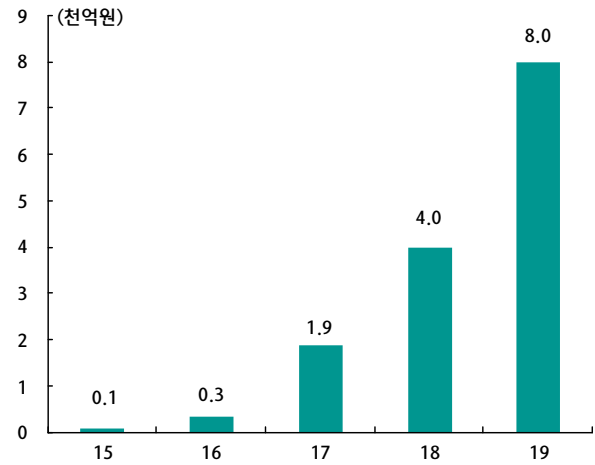
- 음식료 제품의 온라인 시장 확대는 1인 가구 및 맞벌이 가구 증가, 배송시설 구축, 택배 및 모바일 시장 발달(배달앱) 등과 관련
- 최근 국내 1인 가구 및 맞벌이 가구가 크게 늘면서 온라인 시장의 쇼핑시간 단축 및 편의성의 장점이 부각
- 또한 재고관리 능력 및 물류시스템의 개선으로 신선식품의 관리가 용이해지고, 택배시장 발달로 배송 납기일이 단축되면서 취급 가능한 식료품의 범위가 확대
- 특히마켓컬리, 쿠팡 등의 온라인 유통 플랫폼이 관련시장에 진출하여 신선식품의 주기적인 구매를 유도하면서 식료품의 새벽 배송시장이 급성장 중
 - 2019년 국내 신선식품 새벽 배송시장 규모는 8천억 원 정도로 2015년 백억 원에서 80배 증가
- 또한 최근 2~3년 간 조리 가능한 상태로 신선식품을 당일 배송해 주는 밀키트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음식료 제품의 온라인 유통시장의 성장을 지지
 - 한국야쿠르트(잇츠온), GS리테일(심플리쿡), 현대백화점(세프박스), CJ제일제당(쿡킷), 이마트(피코크) 등
 - ※ 밀키트(meal kit)란 Meal(식사)과 Kit(키트)의 합성어로 손질된 식재료와 믹스된 소스를 이용해 빠르게 조리할 수 있는 식사키트(쿡킹박스, 레시피 박스)를 뜻하며, 이미 조리되어 있는 가정간편식과는 조금 다른 개념
- 이와 같이 온라인 판매 제품이 기존 가공식품에서 신선식품으로 범위가 확대되면서 온라인 판매중개사(G마켓, 쿠팡 등) 및 온라인 판매사(유통업체의 온라인몰)의 식품 거래액이 급증

그림3 | 1인 가구 및 맞벌이 가구 비중 추이



자료 : 통계청

그림4 | 새벽배송 시장 규모



자료 : 업계자료

- **음식료 제조업체, 국내 음식료 수요 정체를 만회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판매마진이 높은 온라인 유통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
 - 국내 음식료 산업의 성장이 정체된 가운데, 제조업체 입장에서는 유통 수수료 절감(가격 주도권 회복) 및 유통과정에서의 프로모션(마케팅 활용) 확대 등에 따른 비용 감축으로 마진 개선이 기대되는 온라인 유통채널에 관심
 - 이에 따라 국내 대형 음식료 제조업체는 물류 시스템을 구축하고, 온라인 전용 제품을 출시하는 등 자사의 온라인 쇼핑몰을 적극적으로 확대 중
 - CJ제일제당의 CJ더마켓(구 온마트), 동원F&B의 동원몰, 오투기의 오투기몰, 대상(정원e샵) 등
 - 제조업체는 직영몰을 중심으로 식품판매를 확대할 경우 마진과 가격 경쟁력이 높아지면서 유통업체에 밀렸던 주도권을 확보할 것이라 기대
 - 직영몰 운영 시 대형마트, 편의점, 온라인업체 등의 유통채널에 입점하는데 드는 수수료가 절감
 - 또한 온라인 시장을 활용하여 고객의 구매동향을 파악하고, 마케팅 활동을 할 경우 TV 등의 미디어 광고와 매장 내 프로모션 비용이 절감
 - 결과적으로 음식료 제조업체 입장에서는 오프라인 채널 대비 온라인 채널이 약 3~5%p의 수익성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
 - 음식료 제조업체의 판매마진은 수수료 차이에 따라 동네슈퍼, 온라인, 편의점, 대형마트 순

표1 | 주요 식품업체의 자체 온라인몰 현황

업체명	온라인몰	매출	가입자수	주요 사업
C제일제당	CJ더마켓	400억 원	120만 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핫반, 비비고 정기 배송 ■ 밀키트 등 HMR 새벽 배송 ■ C원포인트 적립, CJ더프라임 서비스 강화
동원F&B	동원Mall	230억 원	93만 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MR 새벽 배송 ■ 유통기한 임박제품에 대해 최대 90% 할인 ■ 프리미엄 등급 회원 혜택
대상	정원e샵	100억 원	15만 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가집, 초록마을 등 1천여 제품 ■ 정기배송, 공향배송 서비스 ■ 식품 큐레이션 서비스(우리아이 영영식단, 다이어트 건강식품, 기러기 아빠의 아침밥상 등) ■ 정원 클래식 서비스 강화
오투기	오투기몰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프라인에 없는 제품, 신제품 위주로 판매
KGC인삼공사	정관장몰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7년 7월 리뉴얼
한국야쿠르트	하이프레시	-	15만 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잇츠온 정기 배송
동원홈푸드	금천미트	-	7만 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라인 B2B 축산물

주 : 매출은 2018년 기준
 자료 : 미래에셋대우 자료 재인용

■ 향후 온라인 음식료 시장의 성장이 기대되나, 다양한 player의 대거 진입으로 과당경쟁 우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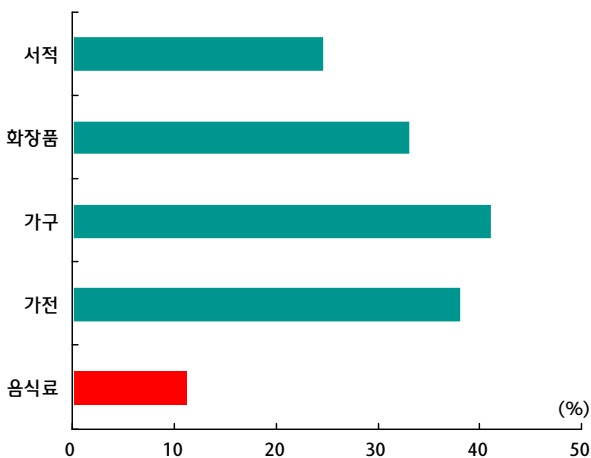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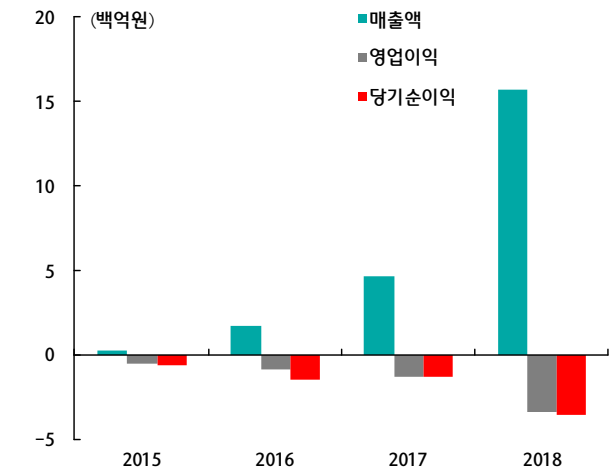
- 국내 시장의 지리적 여건(작은 영토), 소비 트렌드 변화, 기술 발달 등을 고려할 때 온라인 음식료 시장의 성장잠재력이 커 당분간 지속적인 성장이 지속될 전망
 - 일반 소비재의 온라인 침투율(전체 판매 중 온라인 판매 비중)이 20%대 중반인 반면, 식품의 온라인 침투율은 약 10%대로 여전히 낮은 편
- 다만, 거래공간에 대한 물리적 제약이 없는 온라인 시장의 특성 상 시장참여자가 늘면서 기존 업체가 파이를 나눠가지게 되는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어 경쟁 심화 이슈가 대두
 - 시장 선점에 나선 마켓컬리, 쿠팡 등의 이커머스 업체가 저가 공세로 치킨게임 중
- 온라인 채널 확대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인 대기업들이 최근 투자를 검토하는 등 환경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고 있어 향후 경쟁이 더욱 심화될 전망
 - 서울우유협동조합은 2018년 공식 온라인 쇼핑몰인 “나100샵”을 론칭했고, 현대백화점은 2018년 신선식품 중심의 새벽배송인 “새벽식탁”을 출시하였으며, 신세계는 2018년 “SSG배송 굿모닝”으로 새벽배송을 테스트한 후 서울 주요지역을 중심으로 서비스를 시작
- 특히, 기존 음식료 제조업체가 새벽배송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경우 마켓컬리, 쿠팡, 신세계(SSG), 이마트몰 등의 식품 전문 배송업체와 과열 경쟁 불가피
- 따라서 차별화된 브랜드 이미지나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지 못한 기업의 경우 제품 단위당 관리 및 물류비용이 부담으로 작용하면서 실적 하락 우려 
 - 2015년 설립된 마켓컬리는 사업규모(매출)가 2015년 30억 원에서 2018년 1,570억 원으로 50배 이상 확장되었으나, 설립 이후 적자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쿠팡의 경우 적자 규모가 커지면서 2018년 순손실이 1조 원을 초과한 것으로 집계

그림5 | 주요 소비 제품별 온라인 침투율 비교



주 : 2018년 기준
자료 : 통계청

그림6 | 마켓컬리의 실적 추이



주 : 컬리의 감사보고서
자료 : 업계자료

C19 정유 : 미국-이란 갈등 고조에 따른 국내 정유/석유화학 산업 영향과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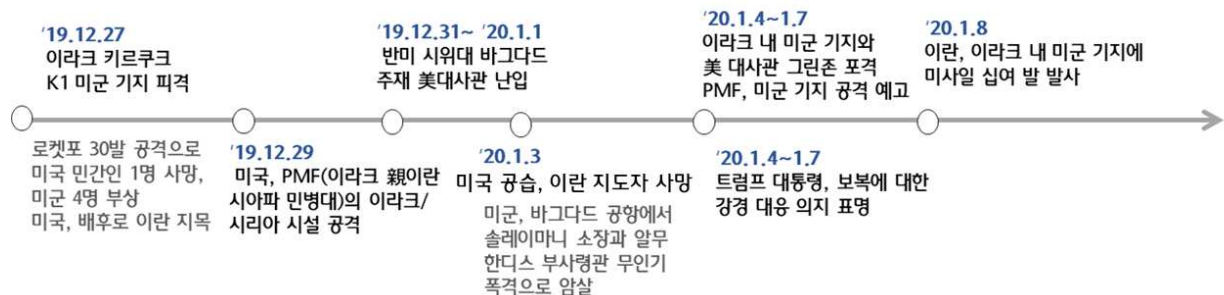
※ **Summary** : 지난 1월 3일 미국 공습으로 이란 Soleimani가 사망하면서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 실제 미국-이란 간 전면전으로 확대될 가능성은 낮으나 중동궤 리스크 확대로 국제유가는 단기적으로 기존 전망 대비 높은 배럴 당 65달러(Dubai유) 내외로 유지될 전망. 이번 사태가 국내 원유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나, 국내 정유/화학 산업에 원가 부담 확대, 수요 감소 등에 따른 수익성 악화 우려

※ **Comment** : 2020년 중국, 아세안, 미국의 정유/화학 투자 증가로 공급과잉이 심화될 것으로 보여 중동궤 리스크 발생 시 업황 급락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중동 지역 정세와 유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

■ 미국 공습에 따른 이란혁명수비대 사령관 Soleimani 사망으로 중동지역 지정학적 리스크 고조

- 지난 1월 3일, 미국의 무인 비행체를 통한 폭격으로 이란 군부 최고 실세인 Soleimani가 사망하면서 미국-이란 갈등이 고조되면서 이란궤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
 - Soleimani는 시아파 이란의 주요 인물로 잠재적 미래 지도자로 거론되던 인물
- 미국 국방부는 이번 공격이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며, 이라크에 주둔하는 미국 외교관 및 관계자들을 보호하고 이란의 향후 공격을 저지하기 위한 조치임을 밝힘
 - 지난해 12월 이라크 내 미군 주둔 기지에 로켓포 공격으로 미국인이 사망했으며, 바그다드 주재 미국 대사관이 습격을 당함
- 이란 최고지도자 Khamenei는 보복대응을 예고하고 사실상 핵협정을 탈퇴하는 성명을 발표하였고 미국은 이에 대해 이란이 공격할 경우 신속하고, 완전하며, 불균형적인 (disproportionate) 방식으로 반격할 것이라 밝히고 있어 양국 갈등이 고조
 - 현재 이란의 미사일 공격 이후 미국이 보복을 자제하며 사태는 진정국면으로 진입

그림7 | 미국-이란 갈등 Timeline



자료 : 언론자료 정리, 하나금융경영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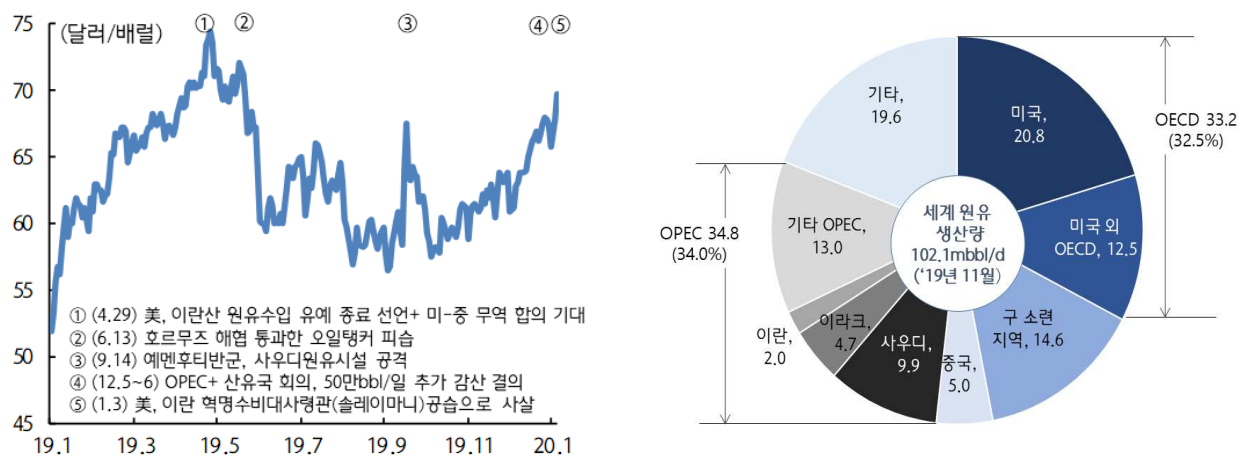
■ 이번 사태로 국제 유가는 3% 이상 급등하며 지난 9월 아브카이크 테러 이후 최고치 경신

- Soleimani 사망 직후인 3일, Brent는 전일대비 \$2.35/bbl 상승한 \$68.60/bbl, WTI는 \$1.87/bbl 상승한 \$63.05/bbl, Dubai는 \$2.10/bbl 상승한 67.79/bbl로 마감
 - 이후 6일에도 국제 유가는 소폭의 상승세를 이어가며 강보합세를 보임
- 이는 지난해 9월 사우디 원유 설비에 대한 드론공격 때 국제 유가가 약 20% 상승한 이후 최대 폭으로 상승한 것이나 유가 상승 폭은 이보다 낮은 수준
- 그러나 최근 국제 유가는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 이외에도 OPEC+의 추가 감산과 미·중 무역협상에 따른 수요 회복 기대로 이미 상승 국면에 진입하고 있던 상황
 - 국제 유가는 12월부터 5주 연속 상승세 기록 중

■ 미국-이란의 전면전으로 확산될 가능성은 제한적이나 국지적 무력 충돌 발생 우려 확대

- 이처럼 미국-이란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지만 이번 사태가 양국 간 전면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미국은 세일 혁명으로 사우디, 러시아와 함께 세계 3대 산유국에 위치하고 있어 중동 지역의 중요성이 과거대비 크게 낮아졌고, 재선을 앞둔 미국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전면전은 부담이 될 것으로 보임
 - '03년 미국은 이라크 전쟁으로 인해 막대한 경제적, 인명 손실이 발생하였으며 당시 부시 대통령의 지지율이 악화된 사례가 있음
- 이란도 전력 측면에서 미국에 절대 열위에 있으며, 그동안 미국의 제재 강화로 경제상황 또한 크게 악화되고 있어 미국을 상대로 한 전면전을 감행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그림8 | 중동발 이슈에 따른 국제 유가 추이(Dubai유 기준) 그림9 | 지역별/국가별 원유 생산량('19.11월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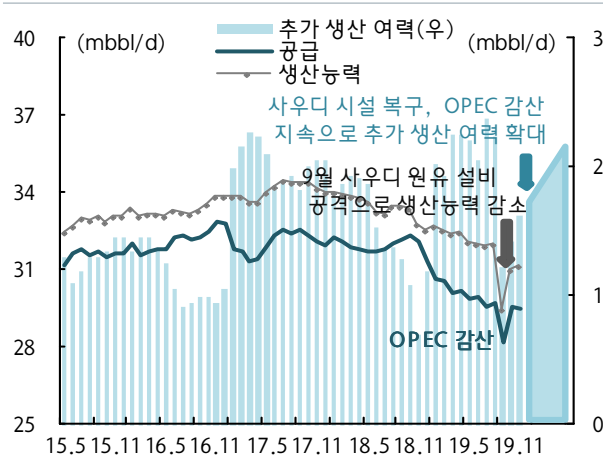


자료 : 페트로넷,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자료 : US EIA "Short-term energy outloo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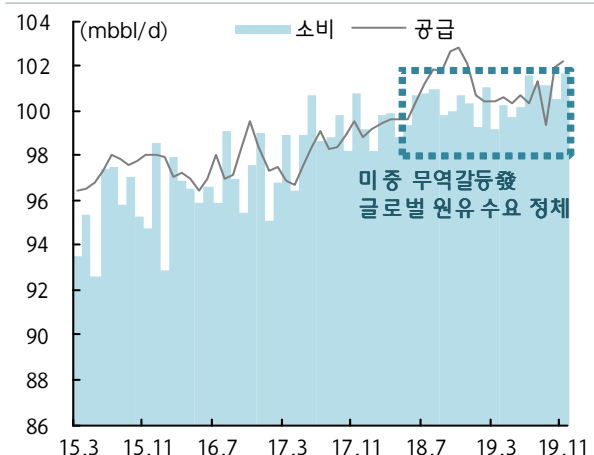
- 그러나 이라크, 이스라엘,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국지적 충돌, 지난 10월 사우디 압카이크 원유시설 피격 등과 같은 테러 발생 가능성은 높을 전망
 - 사우디, 쿠웨이트, 이라크 등 중동 산유국들은 대부분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원유를 수출
- 국제유가는 기존 전망 대비 소폭 상승한 배럴 당 65달러 내외 (Dubai유 기준)수준으로 유지될 전망
 - 향후 국제 유가는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 고조로 현재의 강세 수준(두바이유 기준 배럴 당 65달러 내외)이 1/4분기 동안은 지속될 가능성 높음
 - 그러나 이미 미국의 이란 제재로 세계 시장에 공급되는 이란산 원유량이 크게 감소한 상황이므로 이번 사태가 세계 원유 공급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수준임
 - 이란의 원유 생산량은 '18년 1월 384만 b/d에서 '19년 11월 200만 b/d로 급감하였으며, 현재 이란의 원유 수출은 사실상 중단된 상태
 - 또한 세계 경기 둔화로 원유 수요가 정체된 가운데, 미국과 OPEC의 추가 생산 여력도 높은 상황으로 추가 이슈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現유가 상승세가 장기화 되지는 않을 전망
 - 다만 이번 사태가 이란-미국의 전면전, 또는 호르무즈 해협 전면 봉쇄라는 극단적 상황으로 확산될 경우 국제 유가는 80달러 혹은 그 이상으로도 급등할 가능성 존재
 - 호르무즈 해협이 전면 봉쇄 될 경우, 전 세계 원유 공급량의 약 18%의 공급 차질이 발생
- 이번 사태가 국내 원유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수준이나, 유가 강세와 세계 경기 침체 우려는 국내 산업에 단기적으로 부정적 영향
 - 현재 한국은 지난해 5월 이후 이란산 원유 수입을 하지 않고 있어 이번 미국-이란 충돌이 국내 원유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는 상황

그림10 | OPEC의 원유 생산능력과 공급량 추이



자료 : EIA

그림11 | 세계 원유 수급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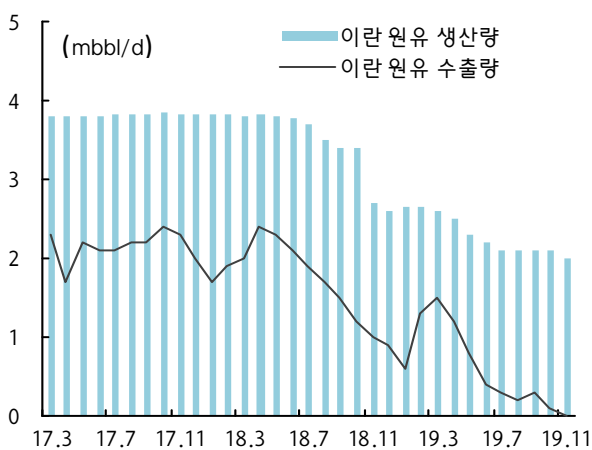
자료 : EIA

- 다만 일부 산업에서 부정적 영향이 예상되는데, 정유업의 경우 유가 상승이 통상적으로 정제마진 상승 요인이나 미국-이란 갈등 고조와 같은 돌발 리스크 발생 시에는 세계 경기 둔화에 따른 석유제품 수요 위축으로 이어져 오히려 업황이 악화될 수 있음
- 석유화학 업계는 세계 경기 침체에 따른 수요 감소로 이미 업황이 악화된 가운데 유가 강세로 원가까지 상승하게 될 경우 부담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
 - 그 외에도 항공, 해운 등 물류업계의 경우 영업비용 중 유류비 비중이 20~30%에 달하고 있어 유가 강세가 장기화 될 경우 직접적인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
 - 또한 중동 시장 공략을 준비하던 국내 완성차 업체들의 수요 위축 우려

■ 이번 사태는 유가 상승뿐만 아니라, 세계 경기 침체에 따른 수요 감소로 이어져 정유/화학을 비롯한 국내 전 산업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모니터링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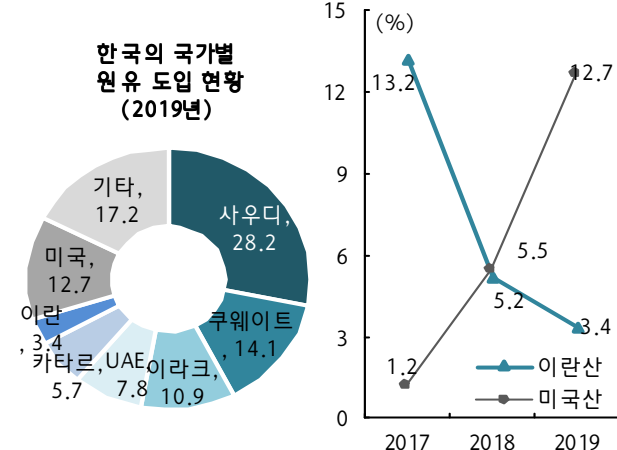
- 이번 갈등이 미국-이란의 전면전 또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 등 극단적 상황으로 변질 가능성은 낮지만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즉흥적 외교' 성향을 감안할 때 예상외의 상황이 전개 될 우려도 제기
- 국내 입장에서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현실화 될 경우 국제 유가 상승 뿐만 아니라 원유 및 가스 공급 중단 문제로 이어지기 때문에 정유, 화학 뿐만 아니라 항공, 물류 등 전 산업으로 타격이 확산될 수 있음
 -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국내로 들어오는 원유, LNG 물량은 국내 공급량의 각각 70%, 43%에 달함
- 특히 정유/화학 산업은 2020년 중국, 아세안, 미국의 투자 증가로 공급과잉이 심화될 것으로 보여 중동발 리스크가 빈번하게 발생 시 업황 급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중동 지역 정세와 유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 📊

그림12 | 이란의 원유 생산 및 수출량 추이



자료 : 페트로넷

그림13 | 한국의 원유 도입 현황과 이란/미국산 도입 비중 추이



자료 : 페트로넷

C24. 철강 : 건설경기 부진으로 수급약화가 예상되는 국내 철근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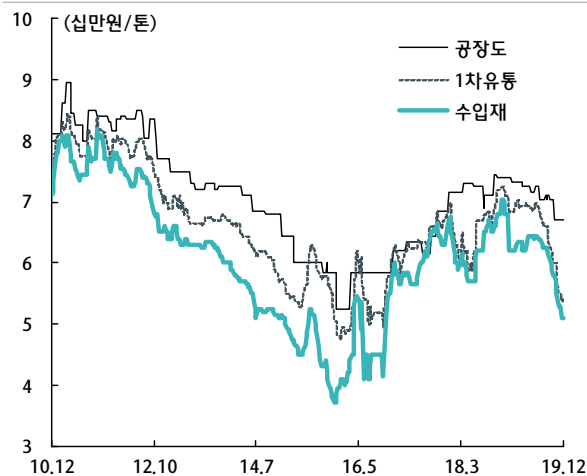
※ **Summary** : 2019년 하반기 철근수요가 점진적으로 감소한 가운데, 한국철강의 전기로 재가동으로 수급불균형 우려가 확산되면서 철근 유통가격이 급락. 이에 따라 철근 제강사의 수익이 축소되었고, 특히 대형업체의 영업이익률이 중견업체보다 낮은 것으로 파악. 향후 건설경기(주거용 중심) 부진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어 당분간 수요 위축에 따른 전기로 제강사의 실적 둔화가 불가피할 전망

※ **Comment** : 건설산업이 2018년 이후 경기 하강기로 진입한 것으로 평가되는 가운데, 중장기적 관점에서 철근업계에 대해 보수적인 여신정책을 유지할 필요

■ 2019년 하반기부터 건설경기 침체에 따른 수급불균형 이슈로 철근 유통가격이 급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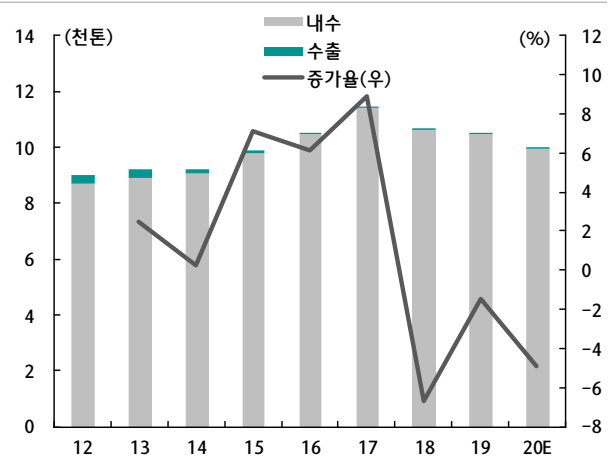
- 2018년부터 진행된 건설경기 침체로 철근 생산 및 수요가 부진하자 국내 전기로 제강사는 시장구조 개선을 위한 방안을 발표하는 등 실적 방어를 위해 노력
 - 전기로 제강사는 건자회와의 가격 협상 중단, 저가 가공철근 수주 중단, 일물일가 가격 정책 등을 발표
-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9년 하반기 철근수요가 점진적으로 감소하고 한국철강의 전기로 재가동으로 수급불균형 리스크가 확산되자 철근업계는 수요 부진 타개를 위한 가격할인(저가판매)으로 시장대응 방식을 변경
 - 2019년 철근 내수 판매는 1,050만 톤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2017년 1,200만 톤, 2018년 1,100만 톤에 못 미치는 수준
- 이에 따라 9월 이후 국내 철근 유통가격이 폭락하고 있어 향후 철근을 주력으로 하는 전기로 제강사의 실적 악화가 우려

그림14 | 국내 철근 유통가격 추이



자료 : 한국철강신문

그림15 | 국내 철근 수요 전망



자료 : 한국철강협회

■ 2020년 건설수요 부진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철근 수요 감소로 전기로 제강사의 실적이 하락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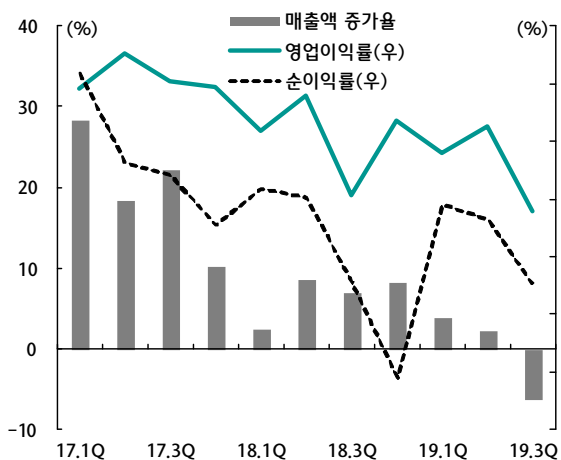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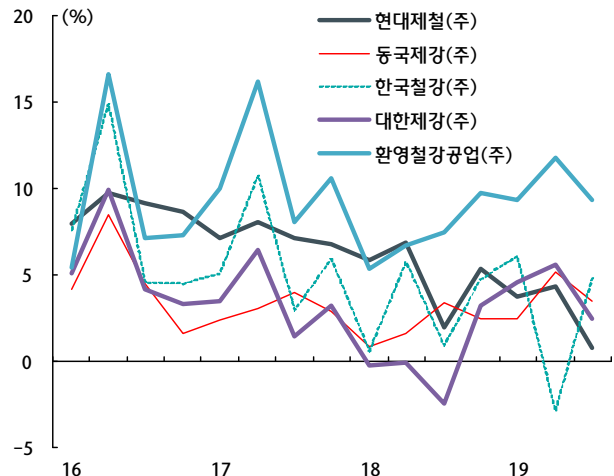
- 2019년 하반기 철근 유통가격이 하락 반전한 이후 2020년 초 현재도 수급악화(수요 감소, 재고 증가)로 약세를 지속 중
- 이에 따라 철근 제강사의 실적이 악화되고 있는데, 특히 대형업체의 영업이익률이 중견업체보다 낮은 것으로 파악
- 이는 주요 원재료인 철스크랩의 가격이 하락한 가운데, 대형 제강사의 경우 높은 철스크랩 보유로 원가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반면, 중견 제강사는 재고회전 속도가 빨라 철스크랩 폭락에 따른 원가율 하락이 빠르게 반영한 것과 관련
- 향후 건설시장 부진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어 수요 위축에 따른 제강사의 실적 하락이 불가피할 전망
 -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정부의 분양가 상한제 등의 부동산 규제 여파로 2020년 국내 건설수주가 2014년 이후 최저치인 140조 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
- 국내 분양실적 추이를 고려할 때 2012년부터 2017년까지는 철근 수요 상승기로 판단하며, 2018년 이후는 수요 하강기로 평가
 - 53만호('15) → 47만호('16) → 31만호('17) → 28만호('18) → 30만호('19) → 27만호('20)
- 특히 2020년 주거용 수주액이 전년대비 10% 이상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어 연간 국내 철근의 생산 및 수요가 천만 톤 이상을 유지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 
 - 2020년 철근 생산은 전년대비 5% 이상 감소한 약 930만 톤으로 예상되며, 수요 또한 990만 톤 정도로 천만 톤을 밑돌 것으로 예상

그림16 | 국내 전기로 제강사의 합산실적 추이



주 : 상장사(6개사) 합산 기준
자료 : Kis-Value

그림17 | 전기로 제강사 업체별 영업이익률 추이



자료 : Kis-Value

C26. 디스플레이 : 삼성은 대형 OLED 도전, LG는 LCD 출구 전략 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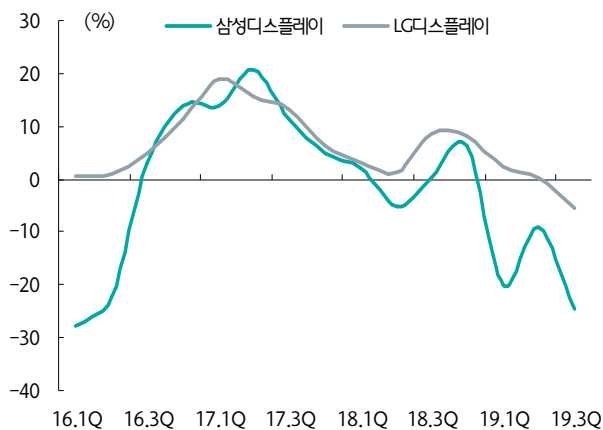
※ **Summary** : 삼성디스플레이는 지난해 10월, 2025년까지 13조원에 달하는 QD-OLED 투자 계획을 발표하고 올해부터 장비 발주를 시작해 본격적으로 대형 OLED 시장에 진출. LG디스플레이는 CES 2020 기간 중 TV용 LCD 패널의 국내 생산 중단을 발표함으로써 LCD 사업을 대폭 축소하고 OLED에 전념하겠다는 의지를 피력. 양사는 각자의 취약 분야를 공략함으로써 현재의 위기를 타개하겠다는 전략을 세움

※ **Comment** : 삼성, LG 등 국내 디스플레이 기업들은 기존의 LCD 생산시설을 OLED로 전환해 Fab 건설 기간과 비용을 최소화하려는 전략을 세웠고 올해부터 OLED 장비 업체들의 수주 증가 기대

■ OLED 실적은 회복세를 보이지만 LCD 실적은 여전히 악화되는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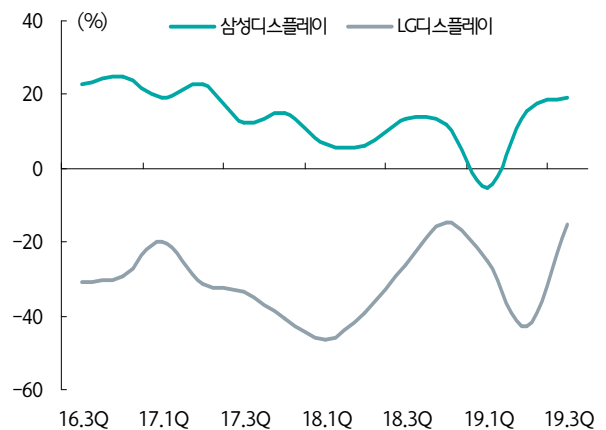
- 패널 가격 하락으로 디스플레이 업체들의 상반기 실적이 저조한 가운데 3분기 들어 OLED 부문의 실적은 다소 회복되었으나 LCD 부문은 더욱 악화되었음
 - OLED 영업이익률 (1H → 3Q): 삼성 6.3% → 19.0%, LG -30.1% → -15.2%
 - LCD 영업이익률 (1H → 3Q): 삼성 -14.2% → -24.5%, LG 1.3% → -5.5%
- OLED와 LCD의 실적 차별화는 가격 변동에 기인하는데 OLED 패널 가격은 하반기에 소폭 상승했으나 LCD 패널 가격은 약보합세를 보이고 있음
 - 특히, 2019년 3분기 9.1인치 이상 대형 LCD 패널 가격은 전기비 6.0% 하락
- 이러한 흐름은 올해도 이어져 OLED가 매출의 76%를 차지하는 삼성디스플레이의 실적은 개선되었으나 LCD 비중이 84%인 LG디스플레이는 적자가 지속될 전망
 - LG디스플레이의 경우 OLED 부문 실적 악화의 주범인 중소형 OLED의 적자 축소가 관건

그림18 | 주요 LCD 패널 제조업체 영업이익률 추이



자료 : 각 사 자료

그림19 | 주요 OLED 패널 제조업체 영업이익률 추이



자료 : 각 사 자료

■ 삼성디스플레이: 본격적인 대형 OLED(QD-OLED) 투자가 시작되는 원년

- 삼성디스플레이는 OLED 세계 1위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제품군이 스마트폰 등 중소형에 국한되어 있었고 TV 시장은 경쟁사인 LG디스플레이가 장악한 상황
 - 삼성디스플레이 OLED 시장점유율 약 85%, LG디스플레이 TV용 OLED 점유율 약 90%
- 그러나 삼성은 지난해 10월, 2025년까지 13조원을 투입해 QD-OLED 양산을 시작하겠다고 발표함에 따라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TV용 대형 OLED 시장에 진출
 - 2021년 1단계 양산 목표는 월 3만장 규모로 추정 (기존 LCD Fab을 OLED로 전환)
- 이번 발표는 삼성전자의 프리미엄 TV 주력이 현재의 QD-LCD에서 OLED로 전환됨을 의미하지만 과거에 한번 실패했던 대형 OLED 상용화가 쉽지는 않을 전망

■ LG디스플레이: TV용 LCD 패널 국내 생산 중단하고 OLED에 집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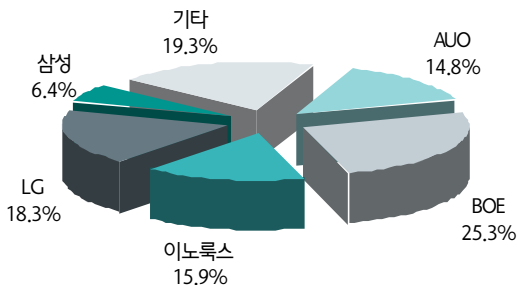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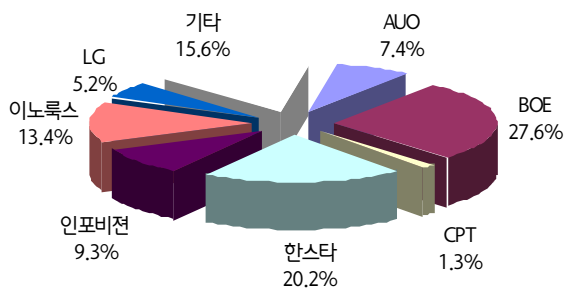
- 삼성디스플레이가 LCD를 일찌감치 포기한 반면 LG디스플레이는 최근까지도 LCD와 OLED를 병행해 왔으나 올해 초 TV용 LCD 패널의 국내 생산 중단을 발표
 -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2020 기간 중 정호영 사장이 기자간담회에서 발표 ('20.1.6)
- LG디스플레이는 그동안 국내에서 TV용 LCD 패널을 생산하던 Fab들을 IT 및 자동차용 디스플레이로 전환하고 중소형 OLED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계획
 - 한국보다 앞선 10.5세대 Fab에서 LCD를 양산하는 중국과의 경쟁이 어렵다고 판단
- 대형/중소형 모두 OLED를 주력으로 삼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나 이미 BOE, CSOT, Truly, Visionox, TCL, Tianma 등 중국 업체들의 추격이 거세 어려움이 예상됨
 - 산술적으로 2022년 중국의 OLED 시장점유율은 37%까지 높아질 전망 

그림20 | 대형 LCD 패널 시장점유율 (2019.3Q)



자료 : IHS, 하나금융경영연구소

그림21 | 중소형 LCD 패널 시장점유율 (2019.3Q)



자료 : IHS, 하나금융경영연구소

C30. 자동차 : 양호한 성장세를 구가중인 드론 시장

※ **Summary** : 드론은 군사용, 취미용, 상업용으로 구분되며, 현재 90% 이상의 드론이 전투, 정찰, 표적, 기만, 전자전, 공격 등 군사용으로 분류. 美 Teal Group의 전망에 따르면 글로벌 드론 시장은 2016년 55.7억불에서 2026년 221.2억불로 연평균 14.8%씩 성장할 것으로 예상. 글로벌 기업들은 드론산업의 성장잠재력을 높게 평가하고 드론 배송 서비스의 활성화를 모색 중.

※ **Comment** : 한국 정부는 상업용 중심의 드론산업 생태계 조성, 공공 수요 기반으로 운영시장 육성 등을 모색 중이며, 민간에서도 드론 배송 서비스의 상용화 작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음.

■ 드론의 표현은 무인기, RPV, UAV, UAS, RPAV 등으로 다양하고 그에 따른 정의도 제각각 1)

- 드론이란 카메라, 센서, 통신시스템 등이 탑재되어 무선전파로 조정할 수 있는 무인 항공기(UAV : Unmanned Aerial Vehicle)를 뜻하는 것
- 사전 입력된 프로그램에 따라 조종사가 탑승하지 않고, 무선전파 유도에 의해 비행이나 조종이 가능한 비행기나 헬리콥터 모양의 무인기를 총칭
- 한국드론산업협회에 따르면 무인기라는 용어는 Drone, RPV, UAV, UAS, RPAV 등 다양하게 표현이 가능하고 정의도 조금씩 다름
- 이러한 드론은 용도에 따라 군사용, 취미용, 상업용으로 구분되며, 현재 90% 이상의 드론이 공격, 전투, 표적, 정찰, 전자전 등 군사용으로 활용

표2 | 드론의 표현과 다양한 정의

구 분	정 의
무인기	조종사가 비행체에 직접 탑승하지 않고, 지상에서 원격조종, 사전 프로그램된 경로에 따라 자동 또는 반자동 형식으로 자율비행하거나 인공지능 탑재하여 자체 환경판단에 따라 임무를 수행하는 비행체와 지상통제장비 및 통신장비 지원장비 등의 전체 시스템을 통칭 (단, 비행체의 회수가 가능해야 함)
Drone	사전 입력된 프로그램에 따라 비행하는 무인 비행체
RPV	Remote Piloted Vehicle의 약자로 지상에서 무선통신 원격조정으로 비행하는 무인 비행체
UAV	Unmanned / Uninhabited / Unhumaned Aerial Vehicle System
UAS	Unmanned Aircraft System의 약자로 무인기가 일정하게 정해진 구역 뿐만 아니라 민간 구역에 진입하게 됨에 따라 Vehicle이 아닌 Aircraft로서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항공기임을 강조하는 용어
RPAV	Remote Piloted Air / Aerial Vehicle의 약자로 2011년 이후 유럽을 중심으로 쓰이기 시작한 용어
Robot Aircraft	지상의 로봇 시스템과 같은 개념에서 비행하는 로봇의 의미에서 사용되는 용어

자료 : 한국드론산업협회

1) “드론 시장 및 산업 동향”, 융합연구정책센터, 2017.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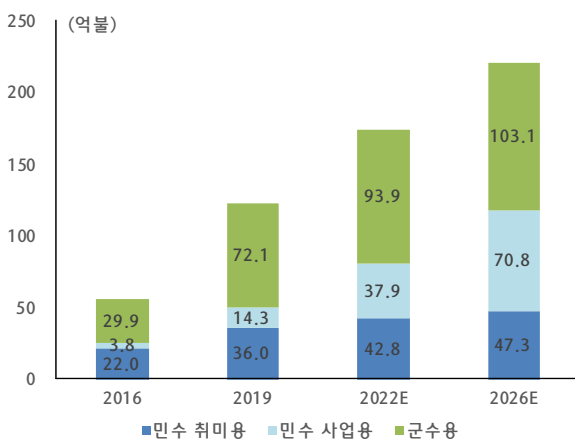
■ 美 Teal Group의 전망에 따르면 드론 시장은 2026년까지 연평균 14.8%씩 성장 예상

- 미국 컨설팅 기관 Teal Group의 전망에 따르면 드론 시장은 2016년 55.7억불에서 2026년 221.2억불로 연평균 14.8%씩 성장할 것으로 예상
- 당분간 촬영용·취미용 드론이 시장의 성장세를 견인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머지않아 건설, 농업, 에너지, 통신, 보험 분야의 상업용 드론이 시장의 성장을 주도할 전망
- 시장에서 상업용 드론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6년 6.8%에 불과했지만 2019년 11.7%까지 상승하였고, 2026년에는 32%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상
 - 2016~26년 상업용·군수용·취미용 드론의 연평균 성장률은 34.1%, 13.2%, 7.9% 순

■ 글로벌 기업들은 드론산업의 성장잠재력을 높게 보고 드론 배송 비즈니스 진출을 모색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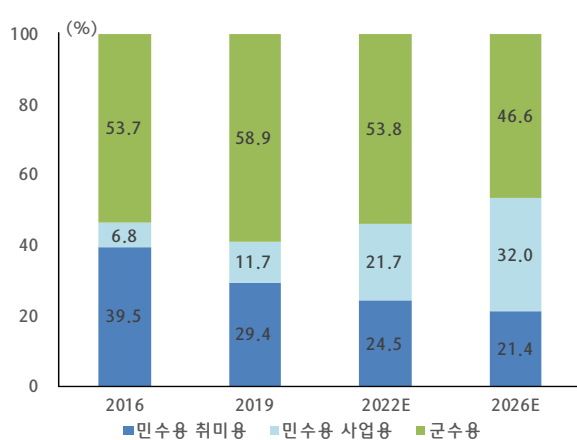
- 전통적인 물류 강자 아마존은 2012년부터 Prime Air 프로젝트를 전개하며 소형 드론을 이용해 물류창고에서 30분 이내 거리에 물건을 배송
 - 아마존 드론은 2016년 세계 최초로 배송물품을 13분 만에 고객 집 마당에 물품을 배달
- 아마존은 비행안전관리, 유지보수, 물품 배송 관련 특허를 출원하고 있어 향후 우수한 드론 배송 네트워크를 구축할 것으로 예상
- 구글은 2019년 4월 호주에서 Project Wing(드론을 이용한 상업용 배송 서비스)의 사업 승인을 받았으며 뒤이어 미국 일부 지역에서도 허가를 받음²⁾
 - Project Wing은 구글이 2015년 설립한 지주회사 알파벳의 자회사 '윙 어비에이션(Wing Aviation)'으로 독립한 프로젝트

그림22 | 글로벌 드론 시장 규모 전망



자료 : Teal Group

그림23 | 글로벌 드론 시장의 용도별 비중 전망



자료 : Teal Group

2) “구글의 혁신은 어디까지? 신개념 드론 택배 시대 개막”, THE DAILYPOST, 2019.4

- 中 알리바바 계열의 배달앱인 어러머(Ele.me)는 2018년 6월부터 고객이 스마트폰으로 음식을 주문하면 배달 전용 드론(E7)을 이용한 음식 배달을 시작
 - 최대 시속 65km로 최대 6kg의 음식을 최장 20km까지 배달 가능하며 20분 정도 소요
- 美 대형 화물운송업체 UPS는 2019년 3월부터 조지아주에서 노스캐롤라이나주로 의약품 드론 배송 시범사업을 진행하였고, 같은 해 10월 연방항공청으로부터 업계 최초로 55파운드 이상의 소화물을 무인 드론을 통한 (야간) 장거리 배송 승인을 받음
- 獨 DHL은 자사의 소형 드론으로 섬지역의 긴급 의약품 배송을 테스트하였으며, 中 드론제작사 이항(Ehang)과 협력하여 2018년부터 드론배송을 시작

■ 한국 정부·민간에서도 상업용 드론 시장의 생태계 구축을 통한 시장 활성화를 모색 중


- 정부는 상업용 중심의 드론산업 생태계 조성, 공공 수요 기반으로 운영시장 육성, 그리고 인프라 구축 및 기술 경쟁력 확보를 통한 세계 시장 선점을 모색 중
- 국립산림과학원은 산림 보호 및 감시,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시설물 안전 진단과 국토 조사 및 민생 순찰, 부산대는 해안선 및 접경 지역 관리, KT는 통신망 활용 무인기 제어, 강원정보문화진흥원은 레저촬영/농업지원 등에 드론 활용을 시험 중
- 민간에서도 드론 배송 서비스의 상용화 작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가장 두각을 나타내는 곳은 우정사업본부, CJ대한통운, 롯데택배 등 물류 관련 기업
- 2021년부터 우편 드론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는 우정사업본부는 지난 2018년 8월 강원도 영월 우체국에서 봉래산 별마로 천문대까지 드론 배송에 성공 

그림24 | 우리나라의 드론 시범 8대 사업 분야 및 관련 업체 현황

물품수송 : 우정사업본부	산림 보호 및 감시 : 국립산림과학원	시설물 안전진단 : 한국국토정보공사	국토조사 및 순찰 : 한국국토정보공사
			
통신망 활용 : KT	해양 관리 : 부산대	농업지원 : 강원정보문화진흥원	영상촬영 : 강원정보문화진흥원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C31. 조선 : 중국 1위 및 2위 조선그룹 합병 승인 및 시사점

※ **Summary** : 최근 중국 1위 및 2위 조선그룹의 합병이 승인되면서 합병그룹은 현대중공업그룹을 제치고 전 세계 최대 조선사로 등극. 국영기업의 효율화가 이번 합병의 주요 배경이며, 중국 정부의 지원이 향후 합병그룹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 이러한 구조조정을 계기로 중국 조선업계는 고부가가치 선박 수주에 역량을 집중할 것으로 보이나, 한국과의 기술력 차이 고려 시 단기간 영향은 미미할 전망

※ **Comment** : 중국 조선그룹 합병에 대한 자국 승인으로 현대중공업그룹의 대우조선해양 인수에 대한 중국 정부 승인은 긍정적일 것으로 보이나, EU 및 싱가포르가 상세 심사에 들어가는 등 불확실성 지속

- **최근 중국 1위·2위 조선그룹이 합병하여 현대중공업그룹을 제치고 전 세계 최대 조선사로 등극**
 - 전 세계 조선업계 상위 업체들의 합병 또는 제휴가 잇따라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중국 1위 조선그룹인 중국선박공업(CSSC)과 2위인 중국선박중공(CSIC)이 합병
 - 중국 조선소 합병 외 한국에서는 현대중공업그룹의 대우조선해양 인수가 진행 중이며, 일본에서는 자국 1위인 이마바리조선과 JMU(Japan Marine United)의 업무 제휴 추진 중
 - 중국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SASAC)는 작년 10월 이번 합병을 승인하였으며, 합병 조선그룹은 총 21개의 조선소(Yard)를 보유함으로써 전 세계 1위 조선사로 등극
 - 2019년 11월 기준 합병 조선그룹의 수주잔고는 11,127천CGT로 전 세계 1위이며, 과거 지속적으로 1위를 유지하였던 현대중공업그룹은 2위로 밀려남(수주잔고 9,844천CGT)
 - 3위와 4위는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으로 각각의 수주잔고는 5,770천CGT와 4,552천CGT

- **국영기업의 효율화가 이번 합병의 주요 배경이며, 정부 지원이 합병그룹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
 - 조선업 장기불황에 따른 국영기업의 효율화가 이번 합병의 주요 배경인 것으로 분석되며, 현대중공업그룹의 대우조선해양 인수가 이번 합병을 가속화한 것으로 보임
 - 합병을 통한 규모의 경제 실현, 설계 및 건조 부문 시너지 효과 등을 기대하고 있으며, 양사는 합병을 위한 사전작업으로 자회사 간 합병 및 청산 등 내부 구조조정을 기 진행
 - 과거 중국 정부는 조선업 구조조정을 위해 화이트리스트(White List)를 선정하여 약 70개 조선소를 지원하였으나, 작년 4월에는 이를 폐기하여 지원 변화를 예고한 상황
 - 최근의 화이트리스트 폐기, 1위 및 2위 조선그룹 간의 합병 등을 통해 유추해 볼 때 중국 정부는 경쟁력 강화를 위해 향후 합병그룹으로 지원을 집중할 것으로 예상됨

- **중국 조선업계는 이러한 합병 등 구조조정을 통해 LNG선 등 고부가가치 선박 수주에 역량을 집중할 것으로 보여 국내 조선업계에 위협적이거나, 단기적인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
 - 중국 조선업계는 결국 일련의 산업재편을 통해 현재 한국 대비 가장 열위에 있는 LNG선 등 고부가가치 선박 수주에 역량을 집중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CSSC와 CSIC는 각각 선박 건조와 설계에 각각 강점을 보이고 있어 시너지 효과 기대
 - 국가별 수주점유율(2019년 말 수주잔고 기준)은 중국 34.9%, 한국 29.3%, 일본 15.4%로 중국이 1위이나, LNG선은 한국이 수주점유율 약 87%로 독점적인 시장지배력을 보임
 - 다만 중국에서 건조한 LNG선에서 지속 문제가 발생하는 등 해외 선주의 중국 조선소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 단기적으로 이러한 합병으로 인한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
 - 중국 후동중화조선(현재까지 유일하게 대형LNG선을 건조한 중국 조선소)이 2016년 건조한 LNG선이 바다 위에 멈춰서 장기간 수리를 받다가 폐선되는 사건이 발생


- **한편 이번 합병으로 현대중공업그룹의 대우조선해양 인수에 대한 중국 정부의 승인은 긍정적**
 - 현대중공업그룹의 대우조선해양 인수에 대한 기업결합심사가 현재 5개국(한국, 중국, 일본, 싱가포르, EU)에서 진행 중이나, 중국 정부는 최근 자국 내 합병 승인 사례가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 간 관계 또한 개선되고 있어 무난히 승인할 것으로 기대
 - 다만 작년 12월 EU와 싱가포르에서는 이번 인수 건에 대한 상세 심사를 결정하는 등 승인에 난항을 겪고 있으며, 양사의 LNG선 수주점유율이 높다는 점이 가장 큰 걸림돌
 - 업체별 LNG선 수주점유율(현재 수주잔고 기준)은 현대중공업 그룹 38.9%, 대우조선해양 24.5%로 양사의 합산 수주점유율이 63.4%에 달해 이에 대한 집중 심사 가능성 높음 

표3 | 전 세계 조선업체(Group) Top 10 (천CGT)

순위	업체	국가	수주잔고	M/S
1	CSSC	중국	11,127	15.0%
2	현대중공업그룹	한국	9,844	13.2%
3	삼성중공업	한국	5,770	7.8%
4	대우조선해양	한국	4,552	6.1%
5	Fincantieri	이탈리아	4,355	5.9%
6	Imabari Shipbuilding	일본	4,160	5.6%
7	Meyer Neptun	독일	2,730	3.7%
8	COSCO Shipping HI	중국	2,369	3.2%
9	Yangzijiang Holdings	중국	2,051	2.8%
10	Chantiers Atlantique	프랑스	1,936	2.6%

주 : 2019년 11월 수주잔고 기준
자료 : Clarkson

표4 | 현대중공업그룹 대우조선 인수 기업결합심사 현황

신청국가	진행현황
한국	- 2019년 7월 합병 승인 심사 신청 - 최장 120일(자료 보정 기간 제외) 심사
중국	- 2019년 7월 합병 승인 심사 신청
일본	- 2019년 9월 합병 승인 심사 신청
EU	- 2단계 심층심사 진행 중이며, 2020년 5월 최종 승인 여부 결정 예정
싱가포르	- 2단계 심층심사 진행 중
카자흐스탄	- 2019년 10월 합병 승인 결정

자료 : 보도자료 종합

D. 태양광 : 급랭한 중국 태양광 시장, 2020년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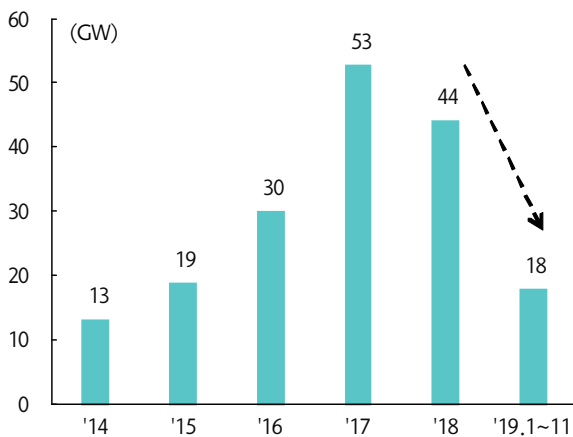
※ **Summary** : 2019년 중국 태양광 발전 설치량이 전년의 절반 이하로 대폭 축소되며 신규 수요처로서의 위상이 약화됨. 이는 중국 정부의 의사결정 지연 및 정책 전환, 보조금 부족, 경쟁 에너지원의 부상 등 다양한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였기 때문. 중국은 2020년 재생에너지 예산을 전년대비 30% 축소한데 이어 시장수요 중심으로 정책을 전환하고 있어 2020년에도 설치 수요 회복은 제한될 전망

※ **Comment** : 다양한 국가로 태양광 설치가 확산되며 세계 시장은 지속 성장하겠으나, 상위 제조업체들의 지배력 강화로 중국외 지역의 판매경쟁이 격화될 전망이며, 국내 기업들의 대응전략 마련이 요구

■ 2019년 중국의 태양광 발전 설치량이 전년의 절반 이하로 대폭 축소되며 신규 수요처로서의 위상이 과거보다 약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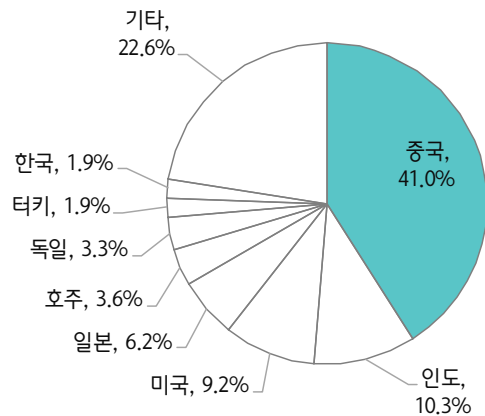
- 중국 국가에너지국(NEA)은 2019년 1~3분기 중국의 태양광 발전 설치량이 전년대비 54% 감소한 16GW를 기록했다고 발표
- 이 가운데 집중형 태양광 발전소가 7.7GW, 분산형 발전이 8.2GW를 차지하며 중소규모 프로젝트 중심으로 설치가 이루어짐
- 아시아 유럽 청정에너지 자문기구(AECEA)에 따르면, 2019년 10~11월 설치량이 약 2GW에 불과하여 시장에서 기대했던 하반기 설치 러시는 나타나지 않았으며, 연간으로는 약 20~24GW가 설치된 것으로 추정
- 중국은 여전히 세계 최대 태양광 시장이지만, 2019년 설치 급감으로 세계 신규 설치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8년 41%에서 2019년에는 20% 내외로 크게 감소

그림25 | 중국 태양광 발전 신규 설치량



자료 : Bloomberg, AECEA, 언론보도

그림26 | 세계 국가별 태양광 설치 비중(2018년 신규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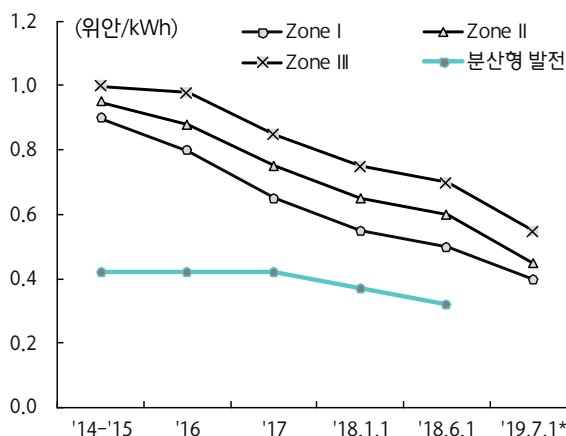


자료 : Bloomberg

■ 중국의 설치 수요 급감은 정책당국의 의사결정 지연 및 시장경쟁 중심으로 제도 전환, 보조금 부족, 경쟁 에너지원 부상 등의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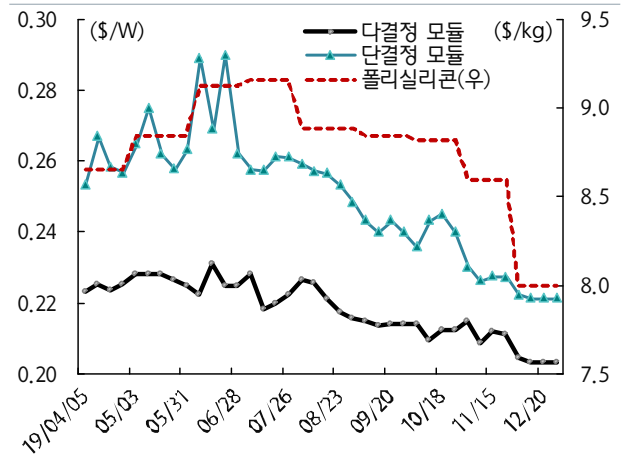
- 중국 정부는 태양광 보조금 지급 정책을 당초 2019년 춘절 이후에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수차례 연기한 뒤 6월에 공표하였으며, 이로 인해 다수 프로젝트의 완공일이 지연
 - 신규 정책에 따라 지원 방식이 FIT에서 경매로 전환(2019.7.1 시행)되었으며, 가정용 분산형과 농가 태양광을 제외한 모든 집중형 및 분산형 태양광은 가격경쟁을 통해 지원대상이 결정됨
- 중국 정부가 경매로 지원정책을 선화하였지만, 토지비용, 세금할인, 자금조달 등 혜택이 있는 일부 시범 프로젝트를 제외하면 아직 그리드 패리티를 맞추기는 쉽지 않은 상황
 - 중국 정부는 경매를 통해 22.8GW 규모의 3,921개 태양광 프로젝트를 선정(2019.7)하였으며, 평균 입찰가는 0.328위안/kWh으로 최저 지도가격(Zone I, 0.4위안/kWh)보다 낮은 수준
- 2019년 정부의 경매에 낙찰된 프로젝트는 연말까지 계통에 연결되지 않으면 분기마다 0.01위안/kWh씩 보조금이 감소하는데, 주요 개발업체들은 불이익을 감수하더라도 태양광 모듈 가격 하락을 기다리는 것을 선택
 - 2019년 12월말 세계 단결정 태양광 모듈 가격은 5월말보다 약 16% 하락
- 또한 보조금 재원 부족으로 프로젝트의 지불 지연 문제도 확대되고 있어 기업들이 태양광 추가 투자에 소극적으로 변화
- 최근 중국 정부는 태양광보다 풍력발전에 정책 우선순위를 두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주요 공기업들도 태양광보다는 풍력 투자를 늘리고 있음

그림27 | 중국의 태양광발전 FIT 지급 변화



주 1) 태양광 자원에 따라 지역별로 Zone I, II, III으로 구분하여 차등 지급
 2) 2019년부터는 FIT를 지도가격으로 변경. 가격경쟁을 통해 낙찰된 프로젝트에 한해 지원되며, 낙찰가격은 지도가격을 초과할 수 없음
 자료 : NDRC

그림28 | 세계 태양광 모듈 및 폴리실리콘 가격 추이



주 : BNEF 연물가격 기준
 자료 : Bloombe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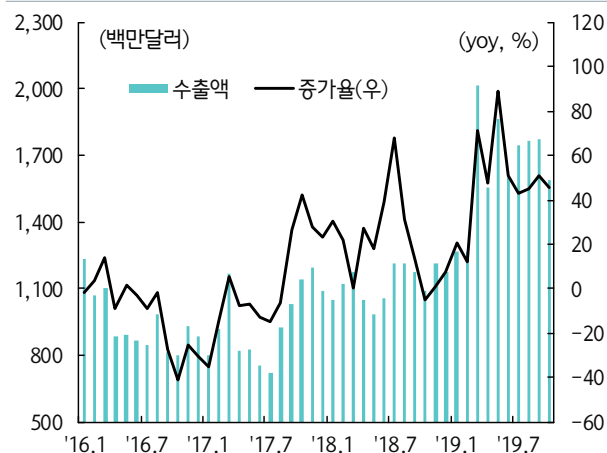
■ 중국 정부의 지원방향 전환으로 2020년 중국의 태양광 수요 회복은 제한될 전망

- 중국 재정부부는 보조금 자원 부족, 재생에너지 발전 단가 하락 등의 이유로 2020년 태양광 보조금 예산을 전년(30억 위안)보다 약 30% 삭감한 21.6억 위안으로 배정
- 또한 2021년부터 육상풍력과 집중형/분산형 상공업용 태양광에 대해 보조금 지급을 전면 폐지하는 것을 고려 중
- 중국 정부가 시장주도로 태양광 설치를 유도하며 주요 기관들은 2020년 중국의 태양광 설치가 전년보다 소폭 늘어난 30GW 내외에 그칠 것으로 전망

■ 다양한 지역으로 태양광 설치가 확산되며 글로벌 시장은 지속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나, 글로벌 상위 제조업체들의 영향력 확대로 판매경쟁은 더욱 심화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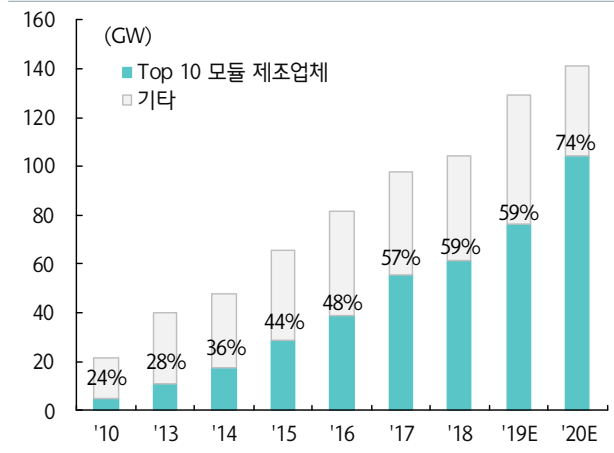
- 중국 수요 감소에도 불구하고 미국, 유럽, 인도 등 다른 국가들의 성장이 지속되며 세계 태양광 설치량은 2018년 108GW에서 2019년 115GW 내외로 증가세 지속
- 중국 태양광 셀/모듈 업체들은 내수 위축을 만회하기 위해 해외 수출을 확대하고 있으며, 2019년 1~10월 중국의 태양광 수출액은 전년동기대비 47.6% 증가한 165억 달러를 기록
 - 특히 2020년 재생에너지 목표 달성을 위해 수요가 늘어난 네덜란드, 스페인, 독일 등 유럽 向 수출이 크게 증가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베트남, 한국 등 인접국으로도 확대
- 지속적인 구조조정 및 대규모 설비 증설로 글로벌 Top 10 셀/모듈업체의 시장 점유율이 확대되고 있어 가격 경쟁력이 열위한 국내 중소기업들의 대응전략 마련이 필요
- 2020년은 중국 등 일부 국가에 집중되었던 수요가 다양한 국가로 빠르게 확산될 것으로 예상되어 국내 기업들의 내수 확보 및 글로벌 시장 다변화 노력이 더욱 중요해질 전망

그림29 | 중국의 태양광 제품 수출 동향



주 : HS코드 85414020 기준
자료 : 무역협회

그림30 | 세계 태양광 모듈 출하량 및 Top 10 기업 비중



자료 : Canadian Solar

F. 건설업 : 호르무즈 해협 긴장 고조로 해외수주 위축 불가피할 전망

※ **Summary** : 이란 핵문제와 관련해 미국과 이란간의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최악의 경우 호르무즈 해협 봉쇄 및 무력 충돌의 가능성도 상존. 양국의 갈등 심화만으로도 중동지역의 수주위축이 우려되고 있으며 최악의 시나리오 하에서는 기존에 진행 중인 공사 현장의 공기지연 또는 중단까지도 불가피. 이 경우 사업장 부실에 따른 어닝 쇼크의 발생 가능성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음

※ **Comment** : 국내 주택건설 위축이 우려되는 가운데 해외 수주 회복 역시 지연될 것으로 전망되며 기 수주한 프로젝트의 부실 가능성에도 대비할 필요가 있음

■ 이란-미국 갈등 재개로 호르무즈 해협 긴장 고조 중

- 미국의 이란 핵협정 탈퇴('18.5월)로 인한 갈등이 고조되면서 이란 혁명수비대군 고위 장성 살해 및 이에 대한 보복 미사일 공격 등이 이어지면서 양국간 갈등이 고조
 - 살해된 솔레이마니 사령관은 이란 핵개발의 핵심인물 중 하나로 이란 최고지도자의 최측근
-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 수 있다면서 미국을 압박하고 있었으며 미국은 이에 대응해 중동지역에 파병인원을 증가시키는 등 양국간 대립이 심화되고 있었음
 - 호르무즈 해협 중 해로로 사용되는 지역의 폭은 10m 수준이며 이중 상행 3m가 이란 영해
- 직접적인 군사대결로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으나 근본 원인이라 할 수 있는 이란 핵개발 관련 양국 갈등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려워 긴장상태가 유지될 전망
- 호르무즈 해협은 페르시아만의 입구로 이 지역 긴장이 고조될 경우 해외 수주는 물론, 진행 중인 국내 건설사의 공사현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매우 높음

그림31 | 호르무즈 해협 및 인접 국가



자료 : 구글맵

표5 | 호르무즈 해협 인접국가 수주 현황 (단위 : 조원)

준공예정 국가	'20	'21	'22	'23	계
UAE	3,840		3,055	0,542	7,437
사우디	0,810		4,041		4,851
이라크	0,773	0,085	4,403		5,261
카타르	1,296	0,461			1,757
쿠웨이트	1,666	1,558			3,244
계	8,385	2,104	11,499	0,542	22,530

자료 : 해외건설협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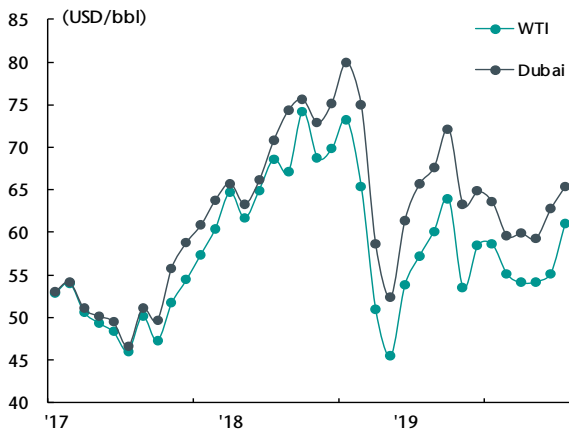
■ **긴장 고조로 인해 유가가 상승하더라도 반사이익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전망**

- 현재 이란에서 수주한 프로젝트 대부분은 실제 공사된 경우는 없어 최악의 경우라도 서류상의 수주액 감소 정도의 경미한 손해가 예상되고 있음
- 다만, 페르시아만 인근 지역은 국내 건설업체의 해외 수주가 집중된 지역으로 지금과 같이 지역 내 군사적 대립이 심화될 경우 주변국가의 발주가 감소할 것으로 우려됨
- 또한, 공기 지연 등의 위험에 노출되기 때문에 국내 건설업체들도 수주를 포기하는 등 발주 및 수주 양측이 모두 사업추진에 소극적일 수 밖에 없는 상황임
 - 건설사들은 '16년 IS 사태로 이라크를 중심으로 중동지역 준공시기가 지연된 경험이 있음
- 최근 급감한 해외수주는 저유가보다는 선진국 대비 낮은 프로젝트 관리 역량, 중국인도 등에 비해 낮은 가격경쟁력, 중동 국가의 투자개발형 프로젝트 선호 강화 등이 원인
 - 국내기업의 해외건설 수주는 '15년 이후 급감했으나 중동지역의 발주는 꾸준한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어 국내기업의 수주감소의 원인을 단순히 저유가로 바라보기에는 무리가 있음

■ **최악의 경우 공사지연 또는 중단 및 이에 따른 사업장 부실화 가능성에 유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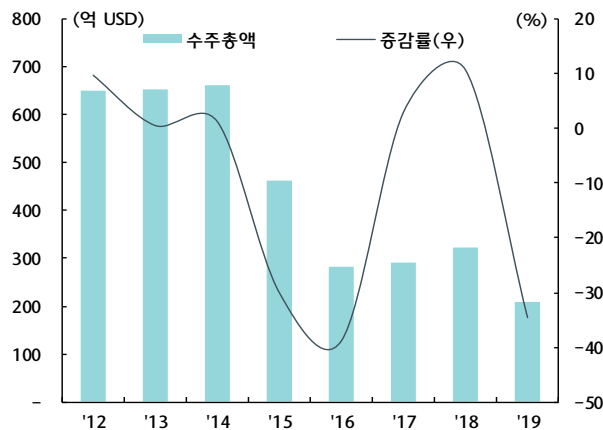
- 국내 건설사들은 호르무즈 해협 인근 5개 국에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는 등 군사적 대립이 고조될 경우 공사지연이 불가피할 전망
 - 호르무즈 해협 봉쇄 수준일 경우 원자재 조달에 차질이 불가피해 일정지연이 우려되며, 직접적인 무력충돌이 있을 경우 현장인원 철수 등으로 공사가 중단될 수도 있음
- 공사 지연의 원인에 대한 협상비용이 추가될 뿐만 아니라 국내 건설사가 공기 연장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경우 '13년, '15년의 어닝 쇼크가 재현될 수 있음에 유의

그림32 | 국제유가 추이



자료: 한국은행

그림33 | 해외건설 수주액



주 : 2019년 수주액은 속보치
자료: 해외건설협회

G. 종합유통 : 면세점, 시장 성장에도 중소 업체들의 부진은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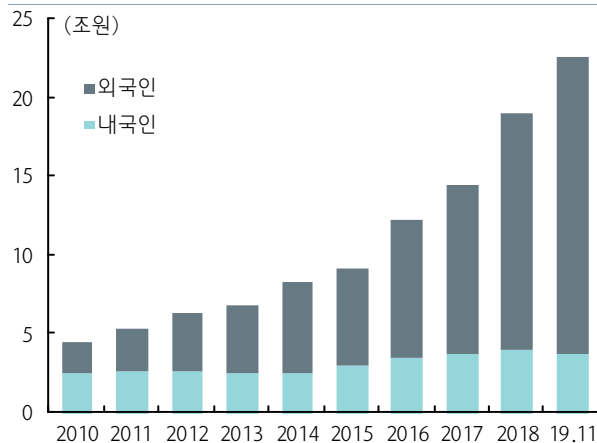
※ **Summary** : 국내 면세점 시장은 사드 사태에도 불구하고 다이공 소비를 기반으로 양호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나, 이들 다이공에 대한 수수료 경쟁은 수익성에 부담으로 작용. 업체 증가 하에 다이공 모객에 강점을 가진 상위 3사 위주로 시장이 집중되면서 중소 업체들의 경영 환경은 악화됨. 최근 한화, 두산, 탑시티 면세점의 시장 철수와 시내면세점 흥행 실패는 이 같은 중소 업체들의 부진을 반영

※ **Comment** : 전체 시장 성장세가 예상되지만, 규모의 경제가 미흡한 중소 업체들에 대해서는 지속되는 적자, 높은 경쟁 강도, 중국 정부의 자국 면세점 육성 정책 등을 고려하여 보수적 접근 필요

■ 다이공 소비가 국내 면세점 성장을 이끌어내고 있으나 송객수수료 증가는 부담으로 작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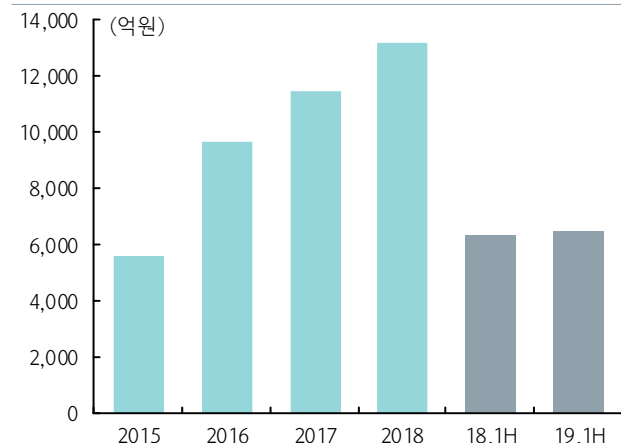
- 국내 면세점 시장은 2017년 사드 사태로 잠시 성장세가 둔화되었으나 이후 성장세를 회복하면서 2018년 19.0조원을 기록하며 전년 14.5조원 대비 31.0% 성장
 - 2019년 11월 누적 기준 22.6조원으로 전년동기 17.4조원 대비 30.0% 성장
 - 이 같은 성장세는 외국인 매출 급증에 기인한 것으로 2018년 외국인 매출은 40.8% 증가
- 국내 면세점 시장은 사드 사태 이후 FIT 및 단체 관광객 매출이 감소했으나 이른바 ‘다이공’으로 불리는 보따리상 소비를 확보하면서 양호한 성장세 유지
 - 다이공 : 우리나라 면세점 상품을 구매 후 중국에 판매하는 전문 보따리상
- 다만,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다이공을 유치하기 위한 경쟁 심화로 송객 수수료가 상승하면서 매출 성장에도 불구하고 수익성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 다이공 수수료는 2018년 1.3조원으로 2015년 대비 2.3배 증가

그림34 | 국내 면세점 매출액 추이



자료 : 한국면세점협회(2019년은 11월 누적 기준)

그림35 | 국내 면세점 송객수수료 규모



자료 : 관세청, 더블 재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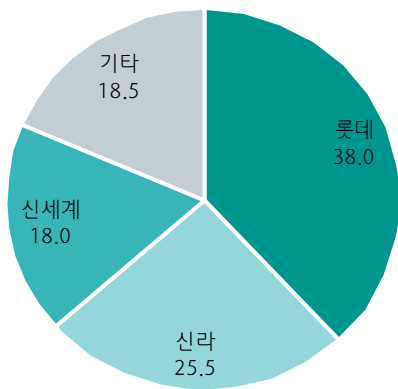
■ **파이공 편중으로 시장 구도가 대형 업체 위주로 집중되면서 중소 업체들의 경영 환경 악화**

- 시장 성장에 대한 기대감과 정부의 경쟁 유도 정책으로 면세점 특허 업체가 증가하면서 서울 시내 면세점은 2015년 6개에서 3년 만에 13개로 2배 이상 증가
- 업체 수 증가에 따른 파이공 유치 경쟁 심화는 풍부한 상품 구성과 송객 수수료 지불 능력을 갖춘 상위 3사(롯데, 신라, 신세계)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며 시장 독과점 형성
 - 상위 3사 점유율은 2019년 상반기 9.4조원으로 국내 시장의 81.5%를 차지
- 중소·중견 기업 면세점들은 대기업 대비 높은 납품 단가와 자금력 부족으로 인한 할인 폭의 한계로 파이공 유치 경쟁에서 밀리면서 경영 환경 악화
 - 또한, 여의도, 동대문 등 파이공 접근성이 낮은 입지의 불리함과 해외 명품 브랜드 관리 및 마케팅 노하우 등에서도 열위

■ **중소 면세점의 경영악화는 잇따른 특허권 반납과 신규 입찰 흥행 실패로 이어짐**

- 대형사들과의 경쟁 속에 중소·중견 면세점들은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면세점 특허를 반납하며 폐업을 하고 있으며, 최근 신규 면세점 입찰에서는 입찰자 미달 사태 발생
- 지난 해 여의도 한화갤러리아 면세점과 동대문 두산면세점은 누적되는 적자와 낮은 회생 가능성 때문에 약 1년의 영업 기간이 남은 특허를 조기 반납하고 폐업을 진행하였으며, 올 1월에는 탑시티 면세점도 매장 관련 소송 및 경영 손실로 폐업을 결정
 - 두산면세점의 부동산과 일부 유형자산을 현대백화점 면세점이 인수하기로 함
- 2019년 11월에 진행된 신규 시내 면세점 입찰에서는 두산면세점을 인수하는 현대를 제외하면 입찰자 없는 미달이 발생하며 면세점 사업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나타냄
 - 전국 6곳(서울 3곳 포함)의 면세점 특허 입찰에 현대백화점 면세점 한 개 업체만 입찰

그림36 | 국내 면세점 시장 점유율(2019년 상반기)



자료 : 관세청, DFN 재인용

표6 | 면세점 폐업 사례

업체	내용
두산면세점 (두산)	- 2016년 동대문에 개점 - 3간 600억원 적자 기록 - 수수료 경쟁 속에 수익 구조 전환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면세 특허권을 2019년 반납 - 신규 진입자인 현대백화점 면세점에 사업 양도
갤러리아 면세점63 (한화)	- 2016년 특허 취득 후 여의도 63빌딩에 개점하였으나 1,000억원의 누적 손실 기록 - 2019년 9월 면세 시장 철수
탑시티면세점	- 2016년 특허 취득 후 사드 사태로 개점이 연기 - 2018년 신촌역사 건물에 개점 - 신촌역사 소유주 SM그룹과의 명도소송과 지속된 경영 손실로 2019년 12월 특허권 반납

자료 : 각 사, 언론자료

■ 주요 면세점 업체들의 매출액은 증가하고 있으나, 수익성 측면에서는 상하위 업체 간 차별화

- 면세점 업체별 재무 실적을 살펴보면, 2017년 사드사태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은 신라, 신세계 등 상위권을 중심으로 전반적인 증가세를 나타냄
 - 면세점 주요 7개 업체(롯데, 신라 등)의 합산 매출액은 2017년과 2018년 각각 1조 415억 원과 1조 2,039억원을 기록하며 전년대비 9.0%, 15.6% 성장
 - 롯데는 사드 사태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으며 2018년 전년대비 0.7% 감소하였으나, 2019년 3분기(누적 기준) 성장세를 회복하며 전년동기대비 5.6% 성장
- 영업이익은 상하위 업체 간 격차를 보이며 롯데, 신라(신라HDC 포함), 신세계 등은 2018년 흑자를 기록한 반면, 동화, 에스엠, 엔타스 등 중소 면세점은 적자 지속
 - 분기별 실적이 공시되는 업체 3곳(롯데, 신라, SM)의 2019년 3분기 누적 영업이익에서도 롯데, 신라는 각각 31.8%, 15.5% 증가하며 흑자폭이 확대된 반면 SM은 26억원 손실 기록

■ 시장 성장세가 지속될 전망이지만, 부진이 예상되는 중소 업체에 대해서는 보수적인 접근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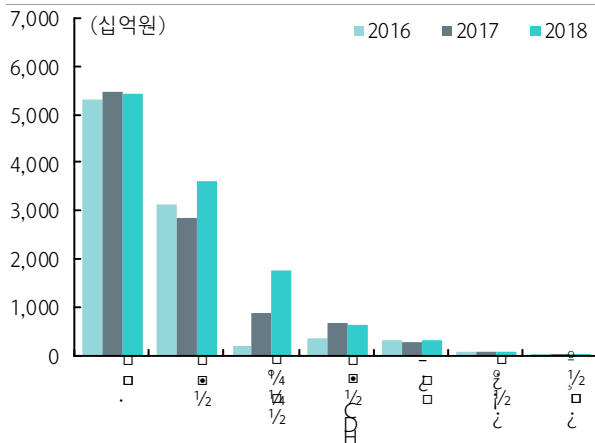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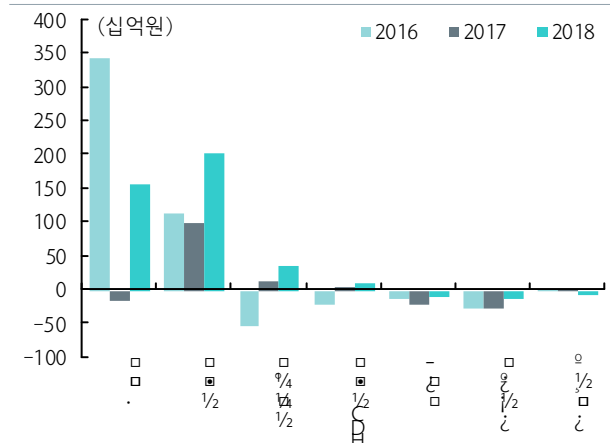
- 전반적인 오프라인 유통업체들의 침체에도 불구하고 면세점 시장 규모는 파이공 매출 지속과 중국인 입국객 회복으로 양호한 성장세를 이어나갈 전망
- 다만, 최근 4~5년간 낙관적 기대와 경쟁 유발 정책으로 면세점 업체가 급증한 상황에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지 못한 중소 업체들의 실적은 개선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
 - 면세점은 해외 소비자들에 대한 광범위한 마케팅 능력, 파이공 송객 수수료를 위한 자금 여력, 브랜드 업체와의 협상력 등이 필수적으로 규모의 경제 효과가 크게 작용
- 중국 정부도 해외 면세점 소비를 자국 내 소비로 전환하기 위한 면세점 육성 정책을 추진 중으로 국내 중소 면세점 업체들에 대한 보수적 접근이 필요한 시점 

그림37 | 국내 주요 면세점별 매출액 (2019년 상반기)



자료 : Kis-value

그림38 | 국내 주요 면세점별 영업이익



자료 : Kis-value

산업별 주요 지표

음식료(C10) Industry Cycle

둔화(주의)

침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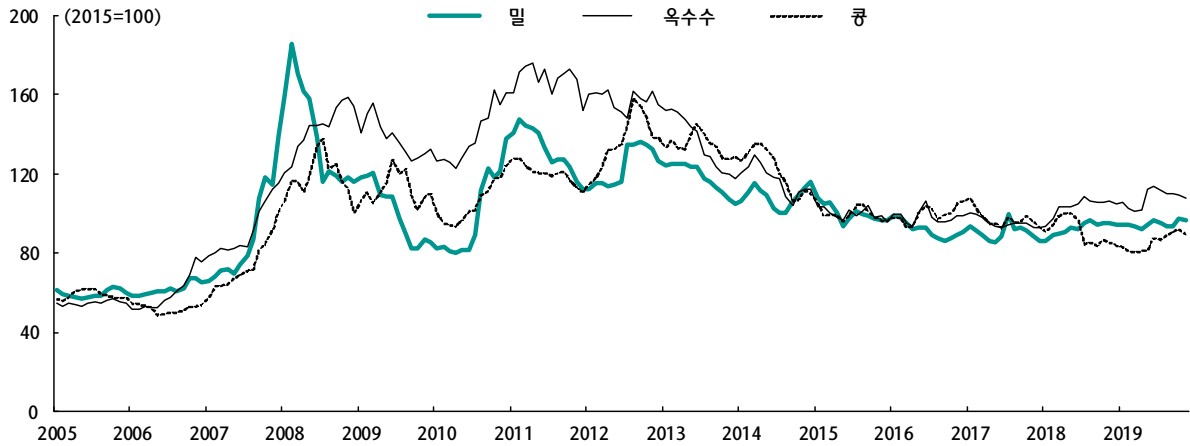
회복

안정

활황

둔화

그림39 | 국내 곡물 수입가격 지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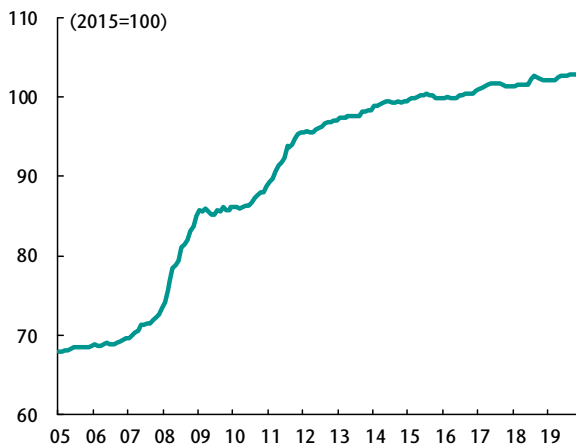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 2020년 국제 곡물가격, 경기 둔화, ASF 발병에 따른 수요 감소 등으로 하향 안정 추세를 지속

- 기후 호조에 따른 생산량 증가, 소비량 제한에 따른 공급 안정, 달러 강세에 따른 투기 수요 후퇴로 국제 곡물가격은 장기 하락 추세를 지속
- 유엔식량농업기구(FAO)는 지난 10월 이후 세계식량가격지수가 소폭 상승하였으나, 2019/2020년 경기둔화에 따른 소비 부진으로 곡물 생산량의 증가율이 소비량의 증가율 대비 커 가격이 하향 안정 추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

그림40 | 음식료품 제품가격 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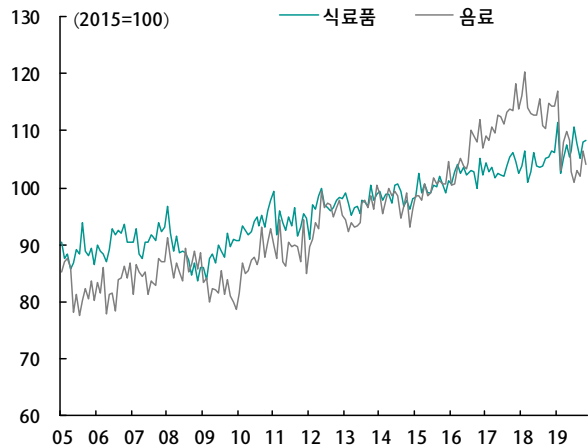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한국은행

■ 2020년 내수 경기 둔화로 가격 인상 제한적

- '19년 하반기 이후 식료품 가격 상승이 제한된 양상이며, 2020년에도 내수 경기 둔화로 식료품 가격이 안정될 것으로 예상. 다만, 신제품 출시 등으로 특정 품목의 판가인상은 가능

그림41 | 음식료품 출하지수



자료: 통계청,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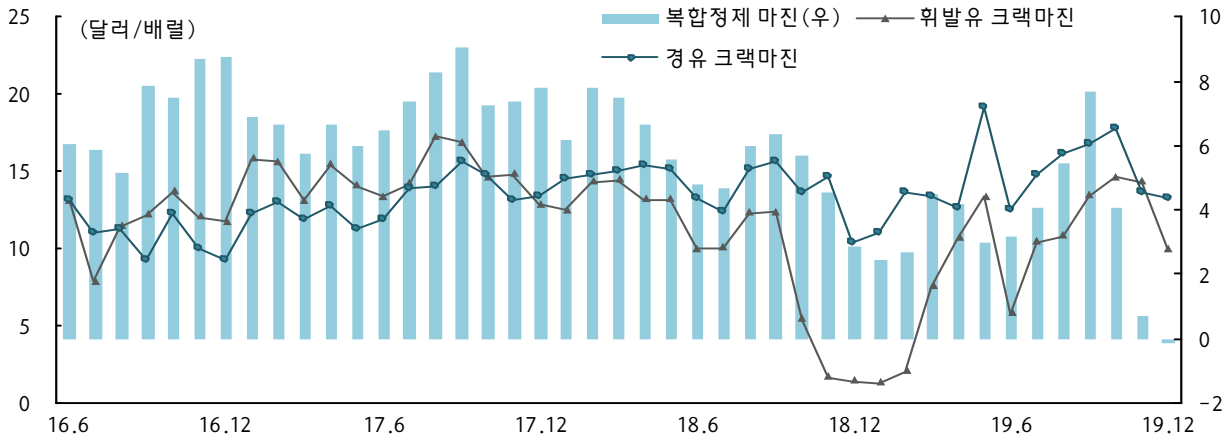
■ 출하지수가 하락 추세였으나, 10월 소폭 회복

- '19년 식료품과 음료 출하가 동반 하락하였고, 특히, 음료의 하락폭이 컸으며, 10월 이후 식료품과 음료 모두 소폭 회복되었으나, 추세적 상승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

정유(C19) Industry Cycle

둔화(주의) 침체 회복 안정 활황 **둔화**

그림42 | 정제마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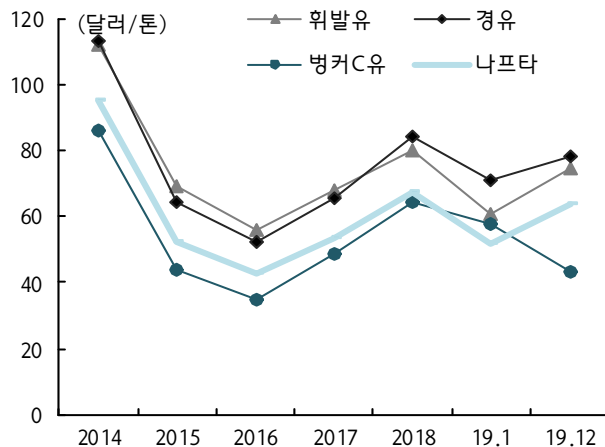


자료: 페트로넷

■ 유가 강세, 석유 소비 감소로 정제마진 마이너스를 기록

- 최근 중등 지정학적 리스크 상승, 미·중 무역분쟁 합의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유가가 상승했으나, 세계 경기 불안에 따른 석유제품 수요 둔화와 세계 정유제품 생산 확대로 제품 가격이 약세를 보이면서 복합정제마진은 마이너스 기록
- 12월 기준 휘발유와 경유의 크랙마진은 각각 9.9\$/bbl, 13.3\$/bbl로 10월 대비 25~30% 하락
- 이란궤 중등 리스크 고조에 따른 석유제품 추가 수요 감소 가능성도 존재하여 정제마진 회복은 제한적

그림43 | 석유제품 가격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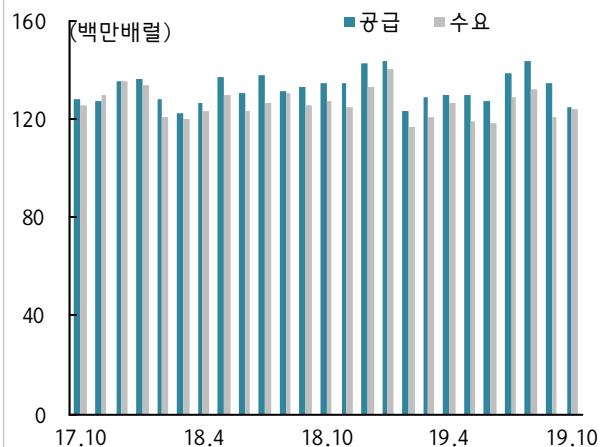


자료: 페트로넷

■ 연초 대비 주요 제품 가격은 상승 전환

- 유가 하락 및 경기 침체에 따른 석유제품 수요 둔화로 휘발유, 경유 등 주요 제품의 가격은 전년대비 약세로 전환
- 그러나 IMO 2020 규제 효과 선반영, 유가상승이 제품 가격에 반영되면서 주요 석유제품 가격은 연초대비 상승

그림44 | 국내 석유정제품 수급 추이



자료: 페트로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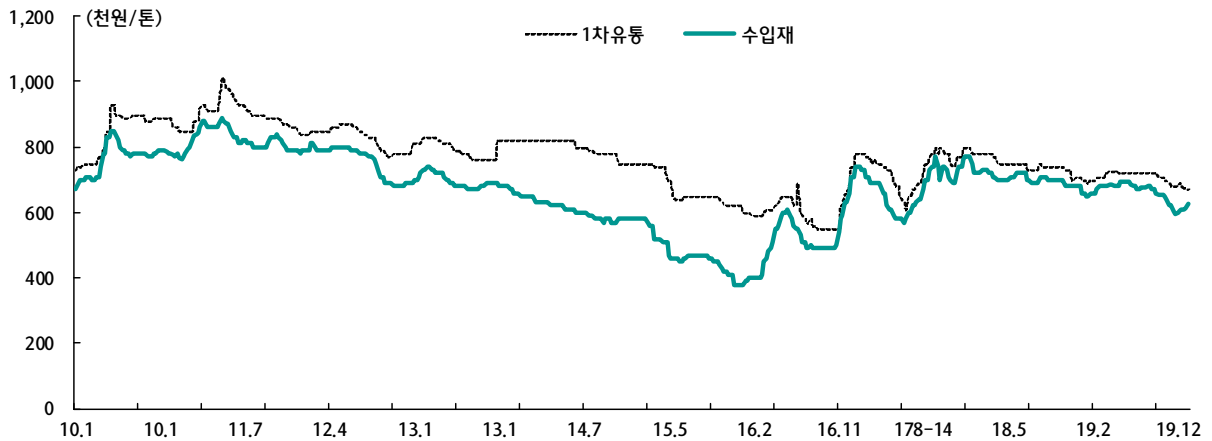
■ 석유제품 소비 부진으로 공급과잉 상황 지속

- 하반기부터 글로벌 경기침체로 인한 석유제품 소비 내수, 수출 부진으로 공급이 수요를 크게 상회하면서 수급 부진 지속 중
- '19년 10월 누계 석유제품 공급은 전년동기비 0.7% 증가한 반면, 수요는 약 3.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철강(C24) Industry Cycle

둔화(주의) 침체 회복 안정 **활황** 둔화

그림45 | 국내 철강(고로 열연)가격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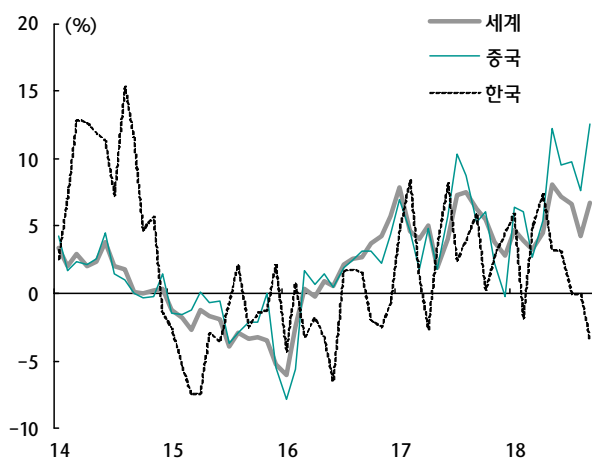


자료: 한국철강신문

■ 2019년 말 중국 철강 유통가격 반등하였으나, 국내 유통가격은 하락추세를 지속

- 2018년부터 미·중 무역분쟁, 산업경기 둔화 등의 영향으로 국제 철강가격이 추세적 약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계절적 이슈로 단기적으로 소폭 등락하는 모습
- 2019년 말 중국 제조업 PMI 호조 및 기준을 인하로 철강가격이 소폭 상승하였으나, 국내 유통가격은 하락 추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2020년 건설·자동차 등의 전방산업 경기 둔화 전망을 고려할 때 당분간 약세 흐름이 지속될 전망

그림46 | 주요국 조강생산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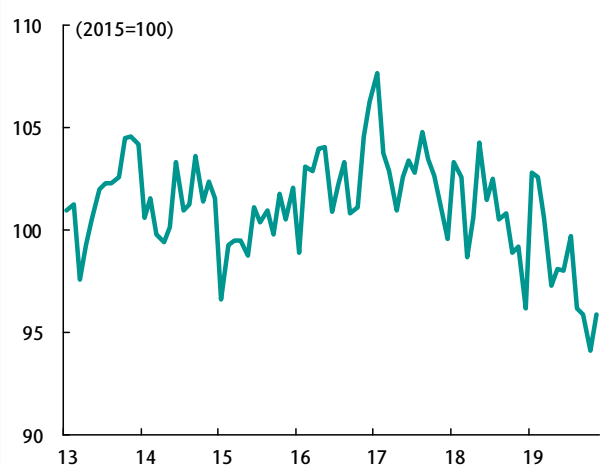


자료: World Steel Association

■ 11월 중국 조강생산 증가율 플러스로 전환

- 하반기 들어 전 세계 조강생산 증가율이 중국 시장 둔화 여파로 축소되었으나, 11월 중국이 전년동기대비 증가로 전환하면서 전 세계 생산 감소폭이 축소

그림47 | 국내 1차 금속 출하지수



자료: 통계청,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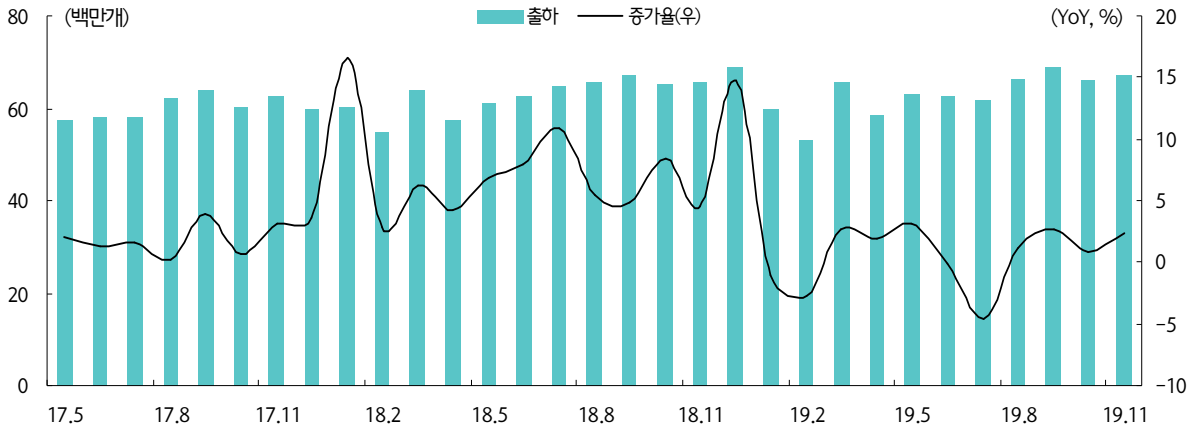
■ 금속 출하지수 11월 소폭 반등

- 건설 및 자동차 경기 둔화 등의 영향으로 국내 철강수요가 장기 하락 추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2019년 11월에는 반등에 성공하였으나, 추세전환으로는 보기 어려운 상황

디스플레이(C26) Industry Cycle

둔화(주의) **침체** 회복 안정 활황 둔화

그림48 | 전 세계 대형 LCD패널 출하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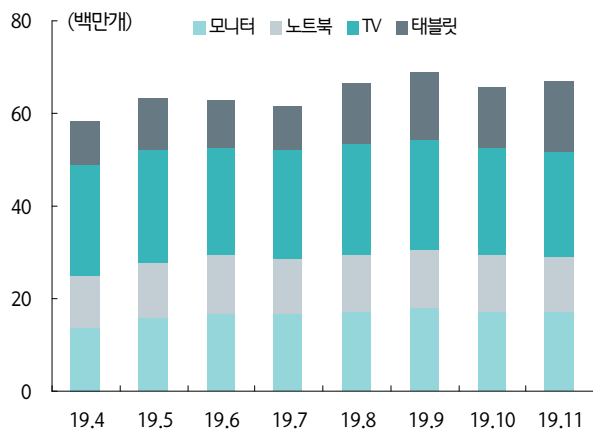


자료: IHS

■ 대형 LCD 출하는 8월부터 플러스 전환, 중소형은 11월까지도 마이너스 지속

- 노트북과 태블릿 판매 호조로 대형 LCD 패널 출하는 2019년 8월 다시 플러스로 전환되어 11월까지 성장세 지속
- 소형 패널 시장은 휴대폰 시장 부진 여파로 12개월 연속 역성장 중이며 11월 들어 감소폭이 오히려 확대됨
- 그러나 금액으로는 대형의 경우 5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고 중소형 패널은 플러스권을 형성해 출하량과 반대

그림49 | 기종별 대형 LCD 패널 출하량



자료: IHS

■ 노트북, 태블릿 회복, TV와 모니터는 부진

- 3Q 모니터용 패널 출하량: 전년동기비 -5.7%
- 3Q 노트북용 패널 출하량: 전년동기비 +4.2%
- 3Q TV용 패널 출하량: 전년동기비 -1.3%
- 3Q 태블릿용 패널 출하량: 전년동기비 +7.8%

그림50 | LCD 패널 대형 약세, 중소형 회복



자료: IHS, 하나금융경영연구소

■ 중소형 LCD 패널 가격 회복 시작

- 2019년 3분기 대형 LCD 패널 ASP 전기비 6.0% 하락
- 2019년 3분기 중소형 LCD 패널 ASP 보합 유지
- 대형 패널 가격은 여전히 추세적인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중소형 패널 가격은 저점 형성 후 회복세

자동차(C30) Industry Cycle

둔화(주의)

침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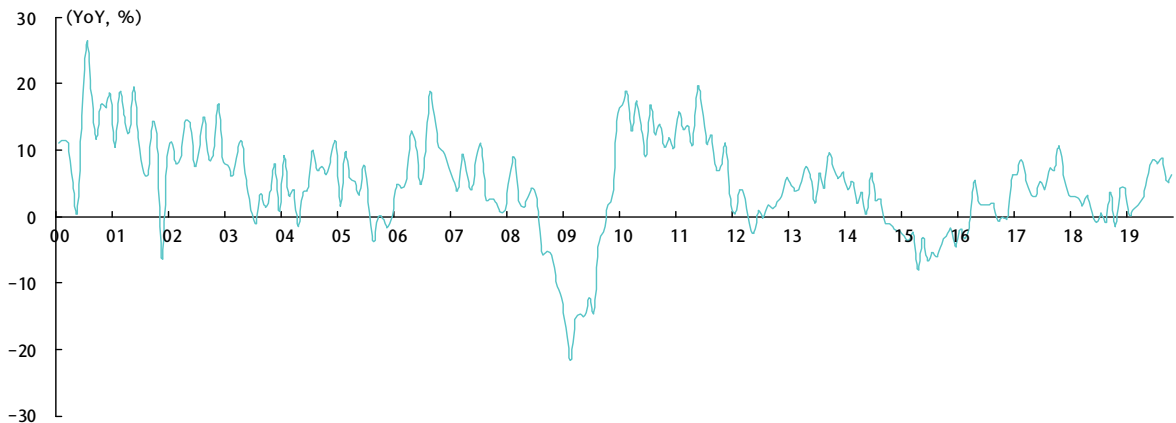
회복

안정

활황

둔화

그림51 | 국내 완성차 수출단가 증감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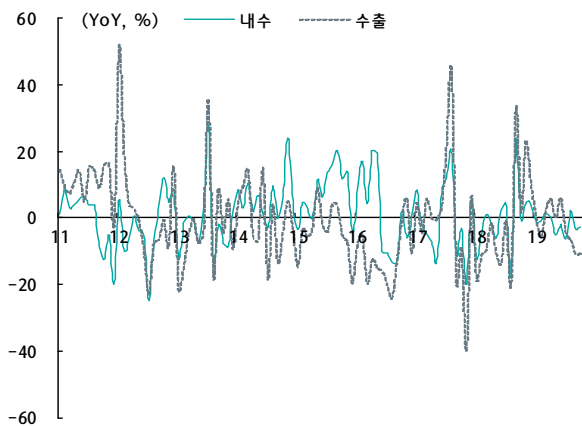


자료: KAMA, 하나금융경영연구소

■ 11월은 수출물량과 수출금액의 동반감소에도 불구하고 수출물량 감소의 영향이 더 크게 작용하면서 수출 단가는 전년동월대비 6.3% 상승

- 11월 수출단가는 대당 1만 6,470달러로 전년동월대비 6.3%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 수출물량과 수출금액 모두 감소하였지만, 수출물량이 수출금액에 비해 더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수출단가는 상승

그림52 | 국내 내수/수출 판매 증감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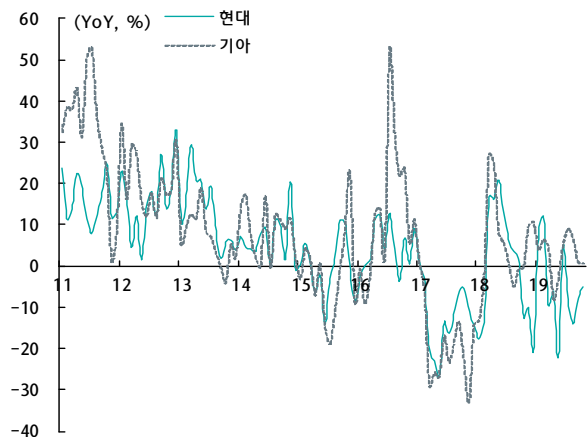


자료: KAMA

■ 11월 내수와 수출 모두 부진

- '19년 11월 내수판매는 개소세인하 같은 세제지원에도 불구하고 경기부진으로 전년동월대비 -2.5%를 나타냄
- '19년 11월 수출은 해외 수요 부진, 기저효과 등으로 전년동월대비 -10.8%를 기록

그림53 | 현대/기아차 해외생산 증감률 추이



자료: KAM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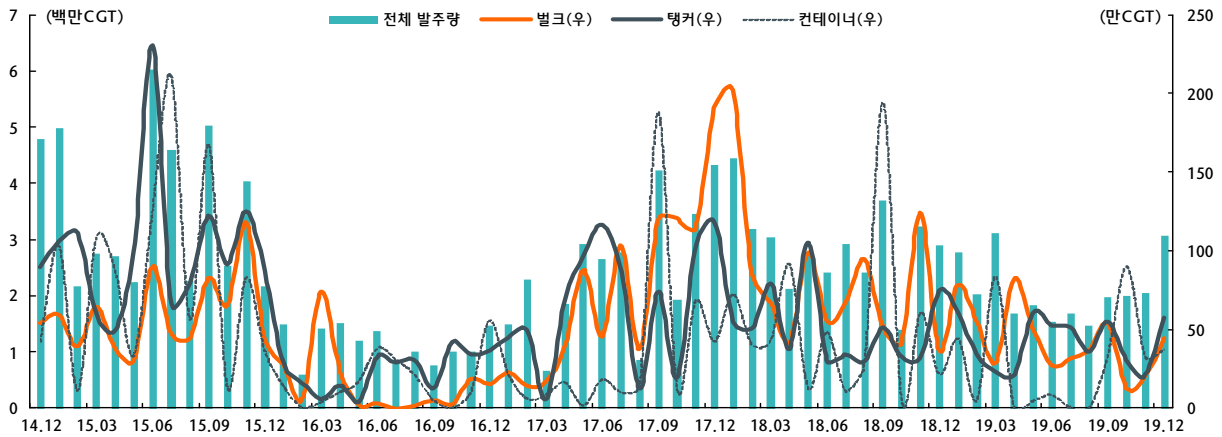
■ 11월 해외생산은 전월에 이어 마이너스 성장

- '19년 11월 현대/기아 해외생산은 35.5만 여대로 전월대비 -5.4%, 전년동월대비 -3.2%로 나타남
- '17년 11월 대비 역시 -11.8%를 나타내며, 전전년동기비로도 마이너스 성장을 지속하고 있는 상황

조선(C31) Industry Cycle

둔화(주의) **침체** 회복 안정 **활황** 둔화

그림54 | 전 세계 선박 발주량(선종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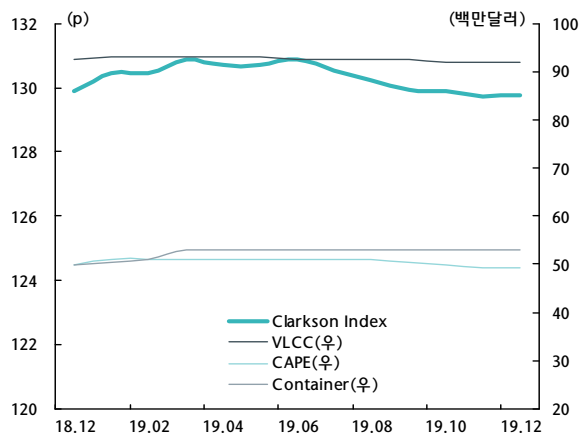


자료: Clarkson

■ 12월 전 세계 상선 발주량은 전월대비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 월별 기준으로는 3월 이후 최저

- 12월 전 세계 상선 발주량은 약 3.1백만CGT를 기록하여 전월대비 48.9% 증가. 벌크선 및 탱커선 발주가 각각 전월대비 119.6%와 173.9% 증가한 반면 컨테이너선은 14.7% 증가에 그침(LNG선은 114% 증가)
- 12월 주요 선종별 발주 척수(총 99척) : 벌크선 20척, 탱커선 13척, 컨테이너선 및 LNG선 각 11척, Ferry 7척 등

그림55 | Clarkson 신조선가 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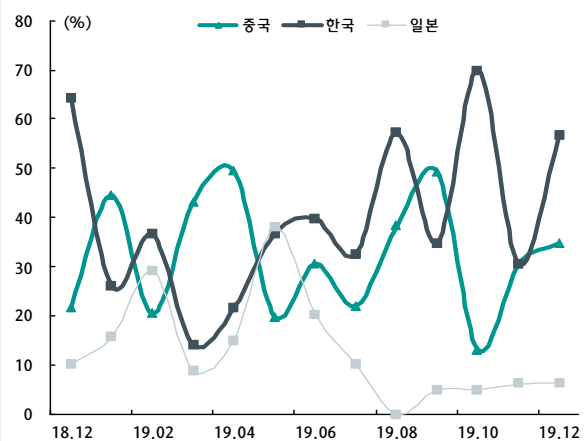


자료: Clarkson

■ 12월 클락슨 신조선가 지수는 130p로 보합

- 12월 클락슨 신조선가 지수는 전월과 동일한 130p를 기록하여 보합세(2018년 9월 이후 130~131p 수준을 유지)
- 주요 선종별 신조선가: Cape선 \$50M, VLCC \$92M, 4,800TEU 컨선 \$53M, 174K CBM LNG선 \$186M

그림56 | 국가별 상선 수주점유율



자료: Clarkson

■ 12월 국가별 수주점유율은 한국이 1위

- 12월 국가별 수주점유율은 한국이 LNG선 11척 및 초대형 컨테이너선 6척을 수주한데 힘입어 1위를 차지 (한중일 수주점유율 : 한국 57%, 중국 35%, 일본 6%)
- 한국 업체별 수주 : 한국조선해양 25척, 대우조선 11척

에너지(D) Industry Cycle

둔화(주의)

침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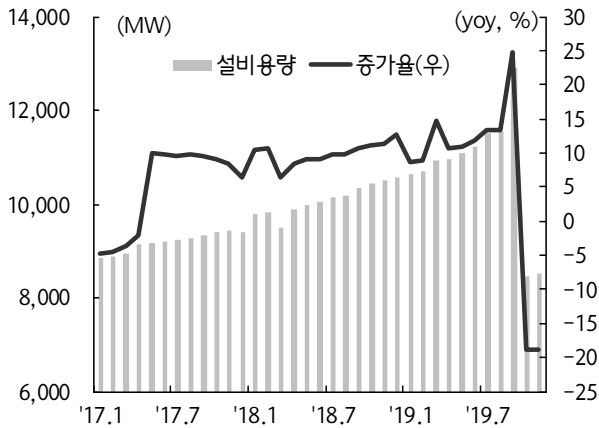
회복

안정

활황

둔화

그림 57 | 신재생에너지 설비용량(전력거래소 등록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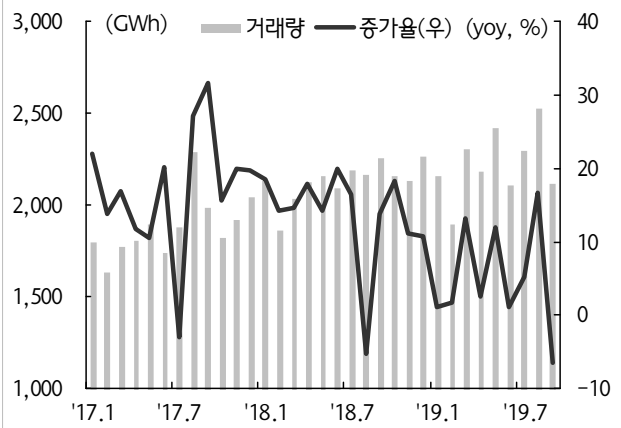


자료: 전력거래소

■ '19년 11월 신재생 설비용량 8,540MW

- 전월대비 태양광 51MW, 연료전지 5MW 등 증가
- 폐기물(4,515MW) 설비제외로 10월부터 용량 감소

그림 58 | 신재생에너지 전력거래량(전력거래소 등록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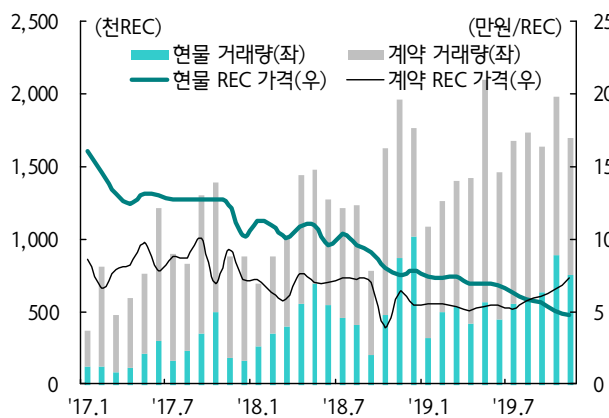


자료: 전력거래소

■ '19년 9월 신재생 전력거래량 2,116GWh

- 2019년 9월 전력거래량 전월대비 16.3% 감소,
- 전년동월대비 6.5% 감소

그림 59 | 평균 REC 거래가격 및 거래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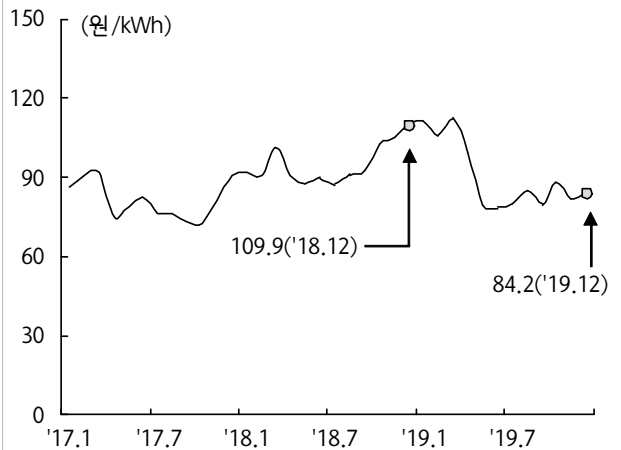
주 : 거래량 및 금액으로부터 계산한 평균 REC 거래가격으로 실제 계약가격 및 현물가격과 차이 존재

자료: 전력거래소

■ '19년 11월 계약REC 7.3만원, 현물REC 4.8만원

- (거래량) 계약 거래량 93 REC로 전년동월비 14.7% 감소,
- 현물 거래량 76만 REC로 전년동월비 12.5% 감소
- (가격) 거래량 감소에도 현물가격 중심으로 약세 지속

그림 60 | SMP 동향



자료: 전력거래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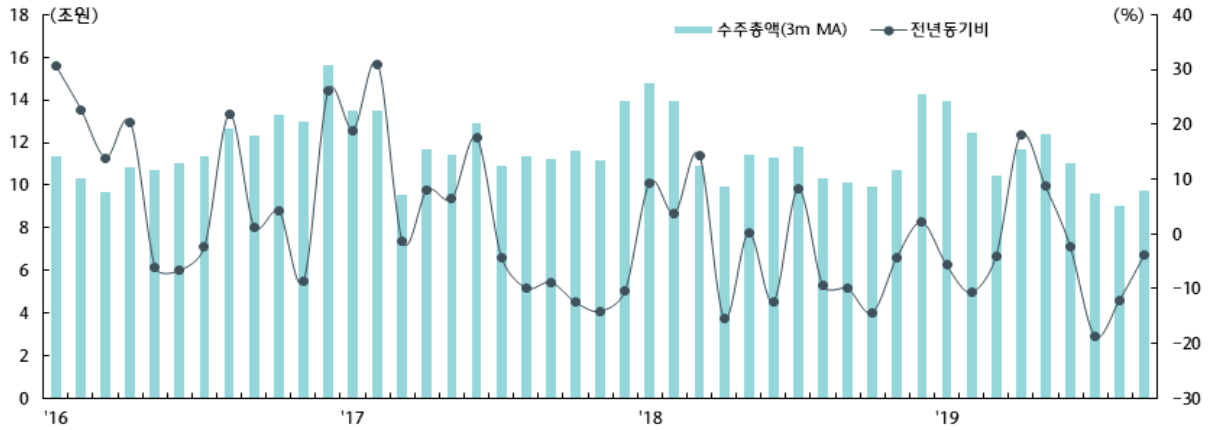
■ '19년 12월 SMP 84.2원/kWh

- 국제유가 하락 등의 영향으로 2019년 12월 SMP 전년 동월대비 23.4% 하락

건설업(F) Industry Cycle

둔화(주의) 침체 회복 안정 활황 **둔화**

그림61 | 건설사 수주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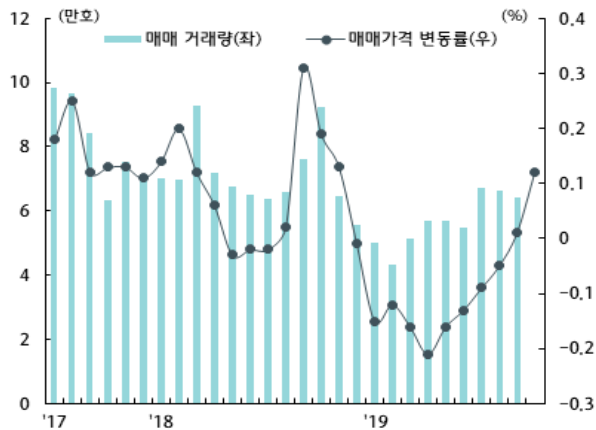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 주택수주 2분기 다소 개선되면서 건설수주 증가했으나 단기효과에 그칠 전망

- 정부의 분양가 상한제 기준 완화 계획이 발표되면서 주택건설 관망세가 확대되어 건설수주 빠르게 감소했으나 강남권 재건축 단지 등 특정지역에 대한 편셋 규제의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수주감소 충격은 빠르게 완화
- GTX-A 착공에 따른 민자 수주액이 꾸준히 반영되면서 경기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민간부문 토목건설 수주 감소액을 상당부분 상쇄하고 있어 1~9월 누적 수주액은 전년 동기대비 3.4% 감소하는데 그쳤음

그림62 | 주택 매매가격 및 거래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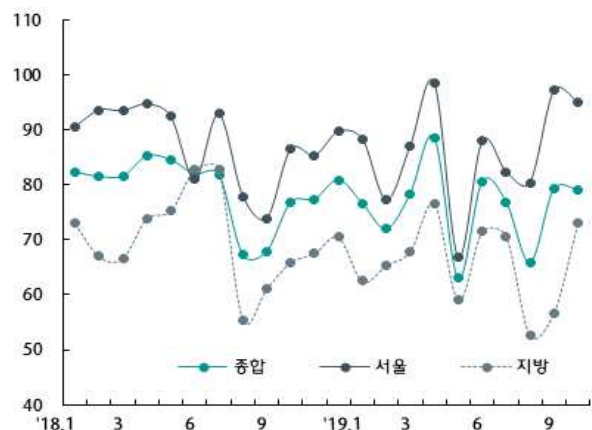


자료: 국토교통부, 한국감정원

■ 주택가격 하락세 멈추고 상승세로 전환

- 정부의 분양가 상한제 확대가 주택공급 감소우려로 인식되면서 기존 아파트에 대한 수요는 오히려 확대
- 저금리 등으로 가격 하락폭 크고 규제 적은 지방 아파트에 대한 투자수요가 확대된 것도 가격 상승의 원인

그림63 |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



자료: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지방 건설경기 불확실성 확대 지속 중

- 건설업계 체감경기는 8월을 저점으로 빠르게 회복되는 모습이 전국적으로 나타나는 중
- 다만, 지방의 건설경기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체감경기 진폭이 확산되고 있는 추세

유통(G) Industry Cycle

둔화(주의)

침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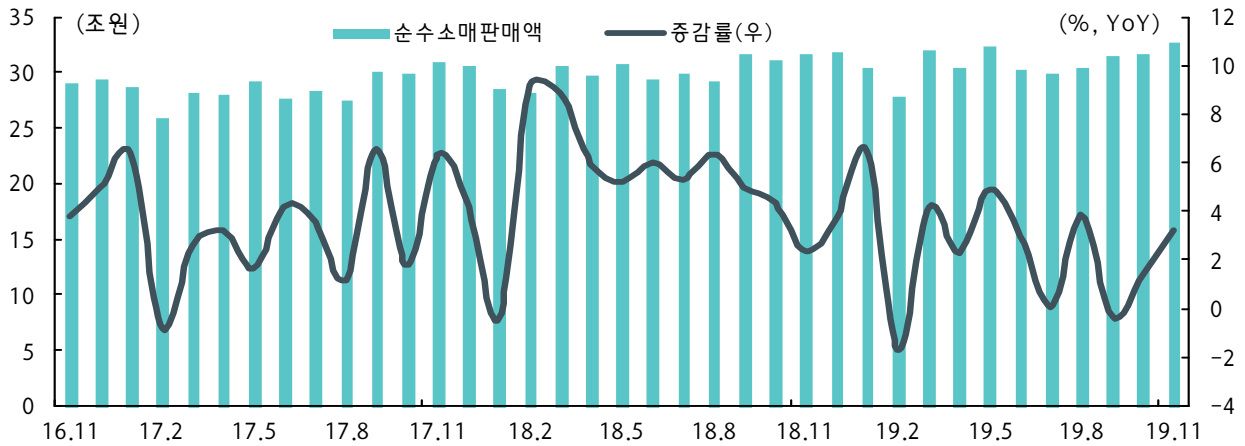
회복

안정

활황

둔화

그림 64 | 순수소매판매액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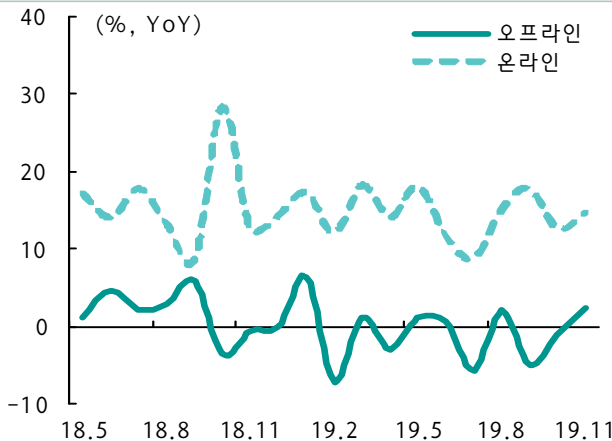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 2019년10월 소폭의 회복을 보인 순수소매판매액은 11월 할인 행사로 성장률 증가

- 순수소매판매액(자동차 및 연료 판매액 제외) 증감률은 10월에는 소폭 회복을 나타내며 1.5% 증가
- 11월에는 '코리아세일페스타' 등 국가적인 할인 행사의 영향으로 전년동월대비 3.2% 성장

그림 65 | 주요 온오프라인 업체들의 매출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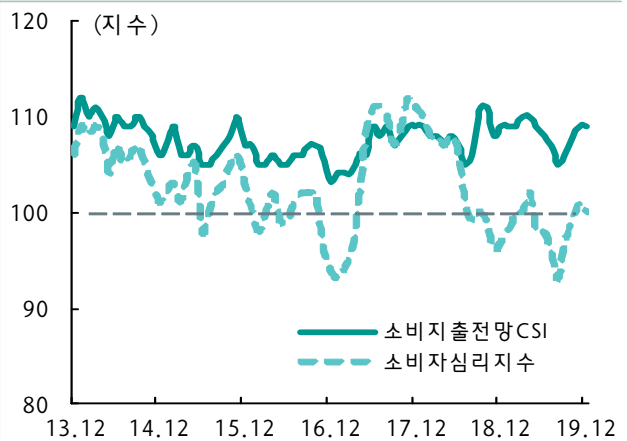
주: 오프라인-편의점(3사), SSM(4사), 백화점(3사), 대형마트(3사)
온라인-온라인판매중개(4사), 온라인판매(9사)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 11월, 할인행사로 온오프라인 성장률 증가

- 오프라인은 겨울 상품 판매 부진 속에서 코리아세일페스타의 영향으로 2.4% 소폭 회복
- 온라인 주요 업체 판매액은 고효율 가전 구매비용 환급 및 할인 행사 등으로 전년동월대비 14.8% 성장

그림 66 | 소비자 심리 지수, 소비 지출 전망



자료: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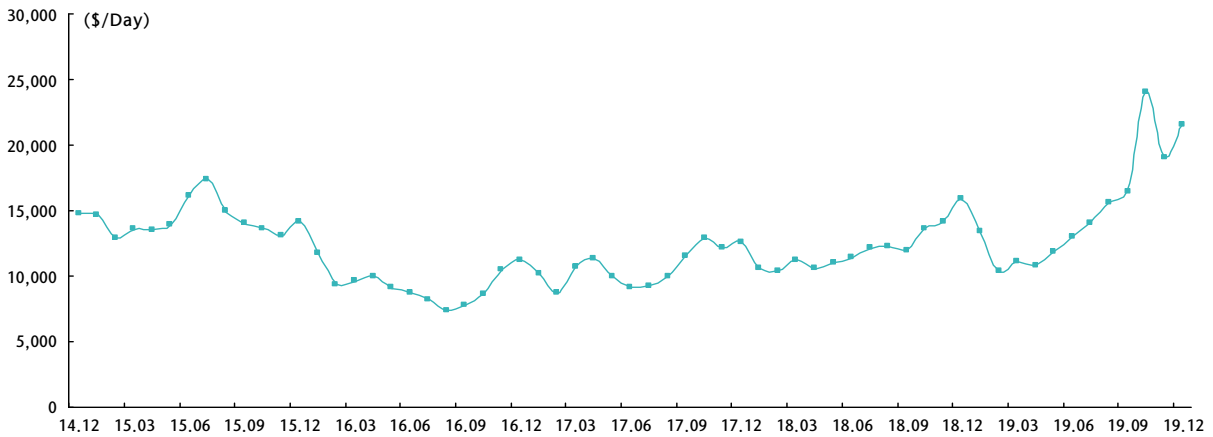
■ 소비자 심리지수는 전월 수준 유지

- 소비자 심리지수는 2019년 8월 93을 저점으로 점진적으로 상승하면서 10월에는 기준점(100)을 상회
- 12월에는 가계수입전망과 생활형편전망 지수가 하락하며 전월 100.9 대비 0.5p 하락한 100.4를 기록

해상운송(I. 운수) Industry Cycle

둔화(주의) **침체** 회복 안정 활황 둔화

그림67 | Clarkson 해운종합지수(Clarksea Inde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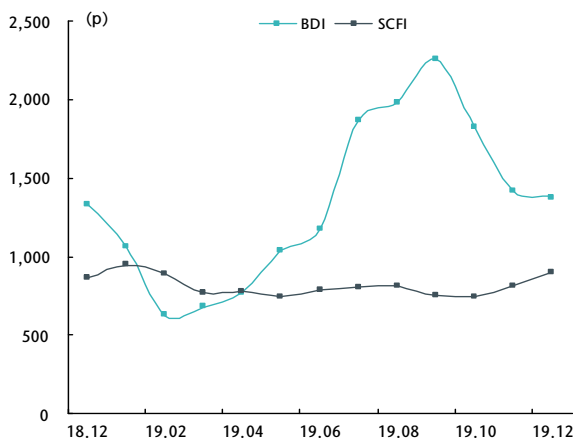


자료: Clarkson

■ 12월 Clarkson 해운종합지수는 탱커선 운임이 다시 급등하며 회복

- 12월 Clarkson 해운종합지수는 전월대비 12.9% 상승한 \$21,591/Day를 기록. 선종별로는 탱커선 운임이 재차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며 전월대비 32.1% 상승한 반면 벌크선과 컨테이너선 운임은 보합
- 12월 LNG선 운임(174K CBM 기준)은 전월대비 17.4% 하락한 \$109,375/Day를 기록(8월 이후 4개월 연속 상승 후 조정)

그림68 | 벌크선(BDI) 및 컨테이너선(SCFI) 운임 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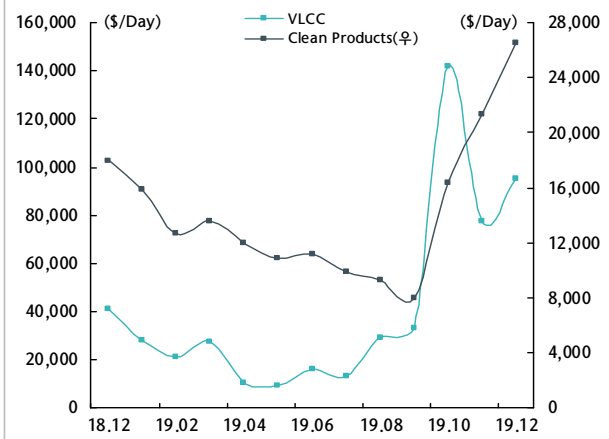


자료: Clarkson

■ BDI 지수는 하락한 반면 SCFI 지수는 상승

- 12월 BDI 지수는 PMX선 운임이 상승한 반면 Cape선과 SMX선은 하락하여 전월대비 2.7% 하락한 1,381p 기록
- 동월 컨테이너선 운임 지수(SCFI 지수)는 전월대비 10.4% 상승한 899p를 기록(유럽 노선 운임의 큰 폭 상승 지속)

그림69 | 탱커선 운임(Earnings)



자료: Clarkson

■ 탱커선은 VLCC 및 석유제품선 운임 모두 상승

- 12월 초대형유조선 운임은 조정 받았던 운임이 재차 상승하여 전월대비 23.2% 상승한 \$95,218/Day를 기록
- 동월 석유제품선 운임은 10월 이후 상승세가 지속되어 전월대비 24.1% 상승한 \$26,487/Day 기록

하나 산업정보 Hana Industry Info.

150-7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7-3
TEL 02-2002-2200
FAX 02-2002-2610
<http://www.hanafn.com>